

부산대학교 여성주의 웹진 '월장' 관련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이버성폭력토론회

- * 일시 : 2001년 6월 4일(월) 오후 6시 - 8시
- * 장소 :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 * 주관 : 부산대 웹진 '월장'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
사단법인 부산성폭력상담소
- * 주최 : 부산대 웹진 '월장' 관련 사이버성폭력대책위

사이버 성폭력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어느새 다가온 무더위.

그것은 해갈에 대한 사람들의 소망을 더 깊이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련한 이 자리 역시 그런 간절함을 담은 자리입니다.

월장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월장에 대한 많은 욕설과 협박과 테러들은 이미 여성주의자라면 한번 정도는 당해본 일이 아닐까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 뼈저리게 확인하는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새삼스럽게 분노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횡포는 여성을 사이버라는 공간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것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나아갈까요?

사이버성폭력과 싸움이 여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해 이것을 공론화하고 범죄행위로 인식하도록 하는 논의들이 이제는 슬슬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처음에 여성주의자들이 성폭력 개념을 규정할 때처럼 많이 깨어지고, 싸우고 힘들게 설득해야 하는 과정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토론회를 시작으로

2001년 6월 4일

부산대 웹진 '월장' 관련 사이버성폭력대책위

(금샘사랑방문화클럽, 동아대학교 총여학생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부산여성의 전화, 부산대학교 여성주의 웹진 '월장',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 여성문화인권센터, 참개혁시민회의, 해양대학교 총여학생회)

사회 : 이재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인사말 ----- 이숙재(부산성폭력상담소 소장)

■ 주제발표 1 : 사이버성폭력과 젠더의 정치학

----- 이나영(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여성학 강사)

■ 주제발표 2 : 사이버성폭력 사례 발표 1

----- 리나 (부산대학교 웹진 '월장' 편집위원)
사이버성폭력 사례발표 2

----- 이석 윤미(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 회장)

■ 주제발표 3 : 사이버성폭력의 법적 처리과정

----- 박지만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질의 및 응답

사이버 성폭력 :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정치학

-부산대 월장 사건에 관한 논란을 보면서

이나영(부산성폭력 상담소부설
가정폭력 상담소장, 여성학 강사)

I. 들어가며

II. 왜 사이버 성폭력에 주목하는가?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특징

III. 사이버 성폭력은 왜 성폭력인가?

-사이버 성폭력의 의미구성 방식

IV. 사이버 성폭력의 원인

V. 대책 및 규제 방향

VI. 나가며

I.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야 한다'는 국가적인 모토 하에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을 서둘러 왔다. 1995년부터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고 1996년 2월에는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정부는 정보 기술 혁신을 통한 본격적인 정보화 사회를 준비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2000년도 전 세계 국가별 정보사회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9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며¹⁾, 국내 무선인터넷 가입자수도 2001년 3월말 현재, 1천852만 명을 넘어섰고²⁾ 인터넷 이용자수는 2,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³⁾고 한다. 가히 정보화라는 거센 소용돌이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할 만하다.

정보화 사회의 상징물로 두드러진 것 중 하나는 사이버공간(cyberspace)의 탄생일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장소와 물질에 기반한 현실세계와는 달리 컴퓨터와 통신기술에 의해 형성되는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는 초현실적 공간(김성국, 1998)이다. 사이버공간의 주된 의사소통 방식은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⁴⁾인데 면대면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비언어적 정보(성별, 나이, 학력, 직업 등)를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리라 기대되기도 한다(이나영, 2000).

그렇다면 사이버공간이 지닌 실시간, 익명성, 탈공간성, 비물질성, 쌍방향성, 문자언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등의 특징으로 인한 탈중심화, 탈서열화, 자유로운 접근과 개방성의 결과가 여성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평등한 환경이 될 것인가? 사이버공간이 현실과는 다르지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라고 한다면 인간관계의 확장과 새로운 관계맺기의 차원에서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얼마나 숙고하고 있는가?

이 글은 2001년 4월 중순 이후부터 발생한 이른바 '월장사건' 이후, 논란이 되어온 '사이버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본 사이버공간 속의 남녀간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동시에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현실에 대해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글이다. 먼저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리해 보고 현실의 성폭력과 연관성을 점검해 본 후에, 마지막으로 평등과 해방의 장으로서의 사이버공간이 지닌 가능성을 과거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반성 및 새로운 의사소통과 관계맺기의 방식의 모색에서 찾고자 한다.

II. 왜 사이버 성폭력에 주목하는가?

-사이버 성폭력의 실태 및 특징

- 1) IDC가 2001년 초 발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따르면, 정보화 지수(ISI: Information Society Index)에서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55개국 중에서 전년대비 3계단 상승한('99년 22위) 19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나라의 국부(國富)를 나타내는 GDP와 같이 ISI는 정보의 부를 나타내는 척도인 동시에 IT 및 인터넷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한다. 이는 컴퓨터, 정보미디어, 인터넷, 사회적 지표 등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측정되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인터넷정보센터 자료).
- 2) 2001년 3월, 정보통신부 자료
- 3) 한국인터넷정보센터(사무총장 송관호)에서 전문조사기관인 인터넷메트릭스社에 의뢰하여 2001년 3월 전국 3,582가구 10,0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결과
- 4) CMC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컴퓨터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양식으로서, 전자우편(electronic mail), 전자게시판(electronic bulletin board), 원격회의(tele-conferencing) 등과 같이 사람들 사이의 메시지의 창조, 저장,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라고 정의된다(Dutton, Rogers & Jun, 1987:219, 양미연, 2000, 재인용).

한마디로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이다. 그렇다면 왜 사이버 성폭력이 문제시되는가? 다수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사이버공간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⁵⁾ 밝히고 있다. 성폭력의 방법으로는 채팅을 이용한 것이 가장 많았고 e-메일 게시판이 그 다음이었으며 대상은 주로 여성과 청소년이었다고 한다. 지난 98년 PC통신업체인 나우누리 조사에서도 응답자중 남성 68%, 여성 85%가 사이버 성폭력을 목격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나영, 2000).

국내 주요 PC통신사인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넷츠고, 나우누리, 채널아이의 가입자 수가 2000년 4월 기준 1,148만 명이며(한국전산원, 2000년 정보화백서:53)6), 인터넷 사용 인구 또한 2,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이버 성폭력은 일부만의 문제이거나 특정한 공간만의 문제일 수 없으며 그러한 현상은 결국 현실이라는 오프라인 공간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관성을 지니게 된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실제로 성폭력을 행사하는 이는 현실 공간 속의 인간이며 그러한 행위를 구성하는 방식과 인지하는 방식 또한 현실공간 속의 규범과 의식을 규정하는 방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상공간은 독립적인 가상공간이 아닌 것이다⁷⁾.

그러므로 대부분의 여성학자들은 현실공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 속에서의 성폭력이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행동을 규제하며 심지어 특정한 공간 속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구도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가상공간은 현실공간 속에 존재하는 남성중심성의 투영이자 남성들은 이를 통해 다시 현실을 '규제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이 일상 속에서의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구분되는 반면, 사이버 성폭력은 주로 대화방(Chatting이나 Talking Room)이나 게시판에서 많이 발생하고 전자우편이나 쪽지 보내기(memo기능)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⁸⁾ 채팅 요구와 번쩍요구, 사이버 스토킹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⁹⁾.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을 공간과 행위별 특징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별 유형을 보면 첫째, 사이버공간 안에서 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로,

[대화실에서] 성에 관한 원치 않는 대화 요청이나 성적인 메시지 전달

[전자우편] 성에 관한 원치 않는 전자우편이나 쪽지(memo) 발송

[게시판에서] 성에 관한 개인의 사적인 자료를 게시판 등에 공개

[게시판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연장으로 게시판에서 상대방을 방해하는 행동 / 동료나 친구, 아는 사람에게 상대와 관련된 (상대가)원하지 않는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현실공간으로 까지 연장되는 경우로

[오프라인에서] 사이버성폭력의 연장으로 우편이나 전화 같은 오프라인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거나, 혹은 번쩍 등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성폭력을 들 수 있다.

행위별로 그 특징을 보면, 욕설, 성관련 욕설, 성적표현, 사이버 섹스('컴섹') 요구,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나

- 5)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이순형 교수가 PC통신 유니텔의 이용자 2천1백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성폭력 의식 및 실태 조사'에 따르면 채팅을 하다 성적 메시지를 받은 응답자가 54.1%(1천35명), e-메일을 통해 음란물을 받은 응답자도 47.4%(9백7명)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한국경제 신문, 2000/5/30). 한편 사이버 성폭력 피해신고센터에서 최근 내 티즌들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는 "사이버 상에서 성적인 모욕을 당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14.3%가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하여 앞의 설문 결과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http://www.gender.or.kr/>
- 6) 2000년 4월 기준 PC통신 이용률은 30.9%이며, 남성이용률은 37.3%, 여성이용률은 24.4%로 남성 이 여성보다 여전히 PC 통신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 7) 영화 매트릭스는 실존의 문제제기를 가상공간과 실제공간간의 분리와 연관성을 통해 잘 드러내 보여준 영화이다.
- 8) 한국성폭력 상담소가 통신이용자 766명(남자 512명, 여자 2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피해 경험자의 87%가 대화방, 쪽지보내기, 일대일 대화방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며, 사이버 성폭력 방지센터의 설문(2000년 7월)에 의하면, 사이버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대화방(65.9%)이며, 그 다음으로 메일(9.3%), 기타(9.0%), 공개 게시판(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나영, 2000). <http://www.gender.or.kr/>
- 9)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2000년 11월부터 전국의 11만 여명을 상대로 한 '사이버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남성보다 여성에게, 나이가 어릴수록, 성관계 파트너가 없을수록 성폭력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컴섹 요구가 29.6%, 번쩍 요구가 15.8%, 사이버 스토킹의 피해도 16.6%나 되었다고 한다.

눌 수 있다(심영희, 2001).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느낌 및 반응을 보면 모멸감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실의 성폭력과 유사한 반응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우 모욕감을 느끼거나 두려움, 위협감을 느낀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남성의 경우 오히려 호감이 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¹⁰⁾. 피해자의 대응 방식을 보면 대부분의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와버리거나 컴퓨터를 꺼버리는 등의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소극적인 대응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¹⁾. 실제로 피해자는 무시로 일관하거나 대화방 변경이나 성별은페 등을 통해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하는 이외의 별다른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회적인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대부분이다.

III. 사이버 성폭력은 왜 성폭력인가?

-사이버 성폭력의 의미구성 방식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및 특징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에 따른 대책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을 정교화해야 하며 동시에 어떠한 방식으로 의미가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공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련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상대가 거부의를 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상대가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글, 부호)나 이미지(음향이나 영상물) 등을 일방적으로 보내서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불쾌감, 수치심, 두려움)를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한편 한국성폭력 상담소는 원치 않는 성적 언어 -외모와 성적 취향에 관한 것이나 음담패설 등-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사이버 성폭력이라 정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함으로써 형사정책연구원의 정의 중 "거부의사"라는 부분과는 다소 배치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중 이 부분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폭력 범위를 넓힐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구체적인 법적 규제의 적용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명백한 거부의사'와 '동의'의 여부를 두고 성폭력의 여부를 가리려고 한다. 그러

나 우리는 현실 공간 속에서 누가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가 하는 문제와 그것을 규정하는 지배와 종속의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다. 이성애적 성관계에서 누가 성행위를 제안하는가/어떠한 행위에 여성적이라는 의미가 부여되는가/ 여성을 과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의에 거부할 명백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관계 안에서 종속관계에 있는 자는 거부의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는가/동의한 후에 이를 반복한 경우, 남성적 자아를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등등의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한다. 메키년의 말처럼 '동의'가 불평등한 조건들 하에서의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감히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혹은 거부의사를 밝힐 수 없는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따져 봐야 한다. 결국 그러한 조건들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폭력의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섹슈얼리티의 문제이자 남성적 권력이 행사되고 구성되는 방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젠더 간 불평등의 문제이다. 남성은 성적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인해 자신의 성적 욕망과 쾌락을 드러내고,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남성성(masculinity)이라 명명되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받는다. 동시에 그러한 남성성이 여성성이라 명명되는 것의 우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정복하는 자는 남성이며 정복당하는 자는 여성이다. 우리는 동일한 힘의 조건 하에서 개인이 자유로운 성적 선택을 한다는 착각을 벗어나려야 한다. 더군다나 상대방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예를 들어 쪽지 보내기나 게시판에 글 올리기 등), 문자나 이미지 이외에는 거부의사를 명백히 전달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수동적으로 회피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사이버공간의 현실에서 "명백한 거부의사"라는 부분은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구성이 될 수가 없다.

동의와 거부의사라는 문제 이외에도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을 구성하는 문제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몇 가지 의혹들을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성적인 언어와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성폭력이라 할 수 있는가/익명성과 탈역제성 등으로 인해 손쉽게 자행될 수 있는 성적 접근(혹은 손쉽게 피할 수도 있는 성적 접근)이 얼마만큼의 심각한 피해를 입히겠는가/심리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또 얼마나 주관적이며 상대적인가/쉽게 잊혀지고 무시될 수 있는 일회적인 사건인가/성적 욕설과 단순한 욕설은 과연 구분 가능한가/성적인 명예훼손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가상 공간에 국한된 문제인가 등등.

필자는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분석해 가면서 사이버 성폭력의 의미를 구성해 보고 사이버 성폭력이 왜 성폭력일 수밖에 없는지 입증해 보이고자 한다.

첫째, 사이버공간의 경우 거부의사 표시 이전에 작동하는 성폭력이 존재하며 상대방이 불쾌감의 명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견해를 무시하는 성폭력이 존재한다. 이는 성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인간은 욕망의 존재이고 자신의 욕망과 쾌락은 자신에게 중요한 감정이며 주체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보낸사람 : *****

보낸시간 : 2000/08/03 02:18 AM

나 누나랑 그거 하고 싶어...

보낸사람 : *****

보낸시간 : 2000/08/03 02:20 AM

저랑 조금 야한 대화 하실래요??

보낸사람 : *****

보낸시간 : 2000/08/03 02:28 AM

10) 심영희의 연구에 의하면 모욕감과 두려움, 위협을 느꼈다는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80%를 넘어선 반면, 남성의 경우 '성거운 소리지만 재미있었다', '성적 충동을 느꼈다',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을 느꼈다' 등 호감을 표명한 비율이 55.2% 차지하여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11) 사이버 성폭력 피해신고센터의 설문(2000년 7월)에 의하면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2.9%가 그냥 무시한다고 답했으며, 같은 방법으로 수치심을 준다(17.6%), 사과를 요청한다(11.6%), 신고한다(11.4%) 등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한다. <http://www.gender.or.kr/> 심영희의 연구에서도 피해자의 67.8%가 대화방을 나오거나 컴퓨터를 끄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소극적 대응의 비율이 높다(여성의 경우 74.7%)고 한다(심영희, 2001).

잠 못드는 밤...정겨운 대화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는 타인의 욕망과 쾌락도 존중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깔고 있다. 욕망을 느낀다는 표현한다는 명백히 다른 행위이다.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아예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언사는 자신의 섹슈얼리티의 틀 안에 타인을 강제로 편입시키려는 인권침해 행위이므로 심각한 폭력이다.

안녕하세요.썸썸하세요.썸썸하세요

보낸사람 : *****

보낸시간 : 2000/08/03 02:46 AM

안녕하세요...저의 대학생 출장 호스트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첨엔 특별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꼭

저주세요.(인물보장)

(2000년 7월 16일, Sayclub 대화방 대기실)(이나영, 2000)

전 22살의 친구 아이디를 빌려서 채팅을 켜 해본 여성입니다.

처음 들어오자마자... 한 메고를 받았습니디.

"치마속 구경좀 할까요?"

그래서 당황한 내가 어쩔줄 모르고 있자 다시 메고가 오더군요..

"어서와. 팬티속 구경좀 하자"

그래서 제가 남자 인척을 하며 남자라고 말을 하자 "여자면 오라구... 너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싶다" 라는 메고가 연이어 오더군요. 그리고 여러 이야기가 반말로 불쾌하게 오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사과문을 써서 올리지 않으면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자.. 메고가 끝으로 다시 오더군요.. "

내 몸을 드러냈습니다." 라고요...(한국 성폭력 상담소 상담 사례)

그러므로 사이버 성폭력은 성적 폭력이다.

둘째, 사이버성폭력에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한, 혹은 의사에 반한 성적 제의와 더불어 남성성을 과시하는 위협이 존재한다. 진자를 섹슈얼리티의 영역에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다면 후자의 경우는 젠더 정체성의 변별화를 통한 성별권력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이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는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일방적인 '위협'과 '욕설', '여성성femininity 비하', 혹은 '남성성masculinity 과시'를 통한 남성성의 상대적 우월성을 확인하는 방식에 대한 사례이다.

#조회수 : 42

글쓴날짜 2001/04/30

지나가다 칼맞는 수가 있을 거요

#1233 번글 제목 : 썸 같은 월장! 글쓴이 : 니미썸 월장12121211221@hanmail.net

#조회수 : 79

글쓴날짜 2001/04/29

개 썸같은 월장 편집자들 따라!

너희들 땀에 슬마시고 지랄한다.

너희 예비,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미친년들. 부산대 명예를 떨어뜨린 썸발년들.

#잘못한거 없다 이겨지?

주둥아리가 있으면 답을 해야할거 아니야? 이것들아, 니들만 할소리 다해놓고 어디 치박해서 코빼기도 안보이는거야? 감당하지도 못할 일이나 벌여놓고서 염병을 하는구만.

하하..열등한것들..(월장너들..)

절리긴 절렀나 보지? 금방삭제해 버리는 것 보니까.

너희는 다시한번말하지만 아주아주~~열등해..원래 남자들 보다 열등하게 태어났어..다시한번 말하지만.

그건 너를 낳은 너희 아버지만 너가 말한 쓰레기 예비역이기 때문이야..ㅋㅋ

머리도 안되고 외모도 안되는 너희같은 열등한 족속들을 뵈 훑날 누가 대려 갈까? 왜 또 지우시려고?

실컷 삭제해 보시지..그런다고 너희가 하등동물임이라는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깐..

나중에 애걸 복걸.. 지나가는 알아치라도 잡으려면

수천만원들여 성형수술 하든지..아님 지금부터라

1199 번글 제목 : 원래 애네들 명칭한 겁쟁이야. 자기일에 책임도 못져.이제알았어?ㅋㅋ 글쓴이 :

르르르

IP : 211.49.76.98

너 부산대 학생이야??

너 못생겨찌?

너 있잖아...이런식으로 어줍잖은

페미니스트 운동하려면...

니 얼굴 드러내고..멋있게 하길바래..

사이버상에서 예비역 네티즌들 속상하게 하지말구..

답에 들들들 니 사진 주소 학교 과 나이 모두모두

소개해라...

알았지...참 궁금하다..어떤 연지???

(이상 월장 게시판과 부산대 게시판에서)

위와 같은 방식은 현실공간의 남성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은 난폭한 언설과 욕설, 위협과 협박 등의 방법으로 남성성의 극단성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젠더를 변별화하고 그러한 젠더 안에 내재한 현실 속의 권력관계를 여성들에게 과시한다. 때로는 무지막지한 반말 욕설로 때로는 무시와 경멸, 여성성 비하의 방법으로 여성을 깔보고 조롱한다.

#지랄후래자식같은년들

통이나 피다 치먹어라.

#조회수 : 58

글쓴날짜 2001/04/28

---:: 때부론 가시나들...니들이 예비역이라두 해봤나? 웃기는 도마위의 예비역? 니들은 사랑가나 가라

병시들..짜증난다 해보지도 않고 지랄하는것들 화난다.....뭔가 하려면 제대로좀 해라 웃기는 가시나..

#조희수 : 56

글쓴날짜 2001/04/28

정말 기가 막힌다..

이런글을 기획한 사람이나..

이런글을 쓰구.. 이곳에 올린 사람이나..

웹진이라며 편집장도 없냐?

휴.. 한심하고.. 어이없네..

이글 기획한 니테두 예비역이랑 사귀는거 아냐?

아니라면 군대 인간 영계들이랑 원조교제하냐?

군복무는 신성한 나라의 의무야..

그 힘든 시절.. 그 고통을 바친 그들에게..

니까짓것들이 먼 할이 있다가..

기획연재 조아하네.. 췌

정신차리구.. 니테가 사귀는 그런 드러운 인간들이나.. 교육 잘 시켜..

참.. 혹시 다 레즈비언 아냐? 케케

#제주위에도 월장남같은 애들있습니다.

뭐가그리 불만인지...맨날 남자욕만 하고멍기조

특정이 적 이렇습니다.

1. 공부는 그러그렇다.

2. 못생겼다.

3. 다리굼다.

4. 게다가 성행할 형편안된다.

5. 남자들한테 저~언혀 관심을 못받는다.

6. 자존심 디게 세다. (군데 자리를 못가린다)

#부산대에는 이쁜여학생없는걸로 아는데..

월장님은 뭐 너무 자기비하는 하지마시길..

공부잘하면 됐죠...어차피..공부하나믿고 간거아닌감?

군데 송길도 한송길 하시니...시집어떻게

잘지 외문이구라..

이말하고 나니 생각나는데...

'전 시집안갈겁니다.독신주의자요' 라고도 하더군요.

님같은 부류의 사람들..특징.."

솔직히 말해서 잘 자신없는거 아닌가? ㅋㅋㅋ

물론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여성을 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때로는 친절한 큰오빠처럼 여성을 어르거나 달래며 때로는 '지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싸주며 여성을 대신하여 다른 남성과 싸워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안에 내재한 젠더적 우월성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은 필자의 과잉반응일까?

#조희수 : 102

글쓴날짜 2001/04/26

화가 나는군요..

솔직히 가뜰이나 예비역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런 망언을 하다니..

어서 빨리 사과내용을 공지하십시오..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는 건 어느정도 남독이 가져만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그 이면에 깔린 계산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게 짐작은 갑니다. 초반에 관심을 끌려고

했다는 것!

어쨌든 이렇게 예비역들이 우글우글 달려들면서

자신을 욕하는 것을 오히려 즐기고 있을 지도

모르겠군요..

참 특이한 분입니다.

그렇게 남자들이 그리웠는지..

#게시자 : ***

소 속 : 경영학부

E-mail : *****@com 조희수 : 351

게시일 : 2001-05-24 종료일 : 2001-12-15

참 / 반 : 12 / 3

선*남..

남에게 한없는 동경을 보내드립니다.

남성의 글에 대한 답변과 여성의 글에 대한 답변 방식의 차이에서 젠더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부산대 자유게시판에 올라 온 진*권씨의 글에 대한 남성들의 대응방식과 월장을 다소 옹호하는 남성들의 글에 대한 다른 남성들의 대응 방식에서 필자는 이름이 가지는 성별 정체성의 효과와 남성이라는 성별에 대한 기본적인 동지적인 이해와 권위를 남성들의 반응에서 엿볼 수 있었다.

#진*권 (*****@chollan.net) Access : 245

Lines : 12

예비역? 애들, 뭐하는 애들이예요?

하여튼 또라이들이 따로 없구먼..

아, 너그들이 예비역 전세였나?

딱가지 없는 것들.

이 녀들, 어디 모여있대요?

가서 화 세려버리게.

이것들이 어디서 쟁개야.

#게시자 : 이*

소 속 : 없음

E-mail : 조희수 : 211

게시일 : 2001-05-28 종료일 : 2001-12-12

참 / 반 : 9 / 7

강*현님 보십시오

먼저 진*권님이 노*경님의 자계에서 육설을 다짜고 짜 퍼부은 것에 대해서 말해보지요. 진*권님은 이렇게 육으로서 토론을 시작하더군요.....

#게시자 : 박*현

소 속 : ****학과

E-mail : 조희수 : 617

게시일 : 2001-05-22 종료일 : 2001-06-05

찬 / 반 : 1 / 0

진*권님

아니, 저의 논점은 그것이 아닙니다. 풍자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풍자가 없는 사회는 말할 자유가 없는 사회나 마찬가지지요 또한 해학과 풍자의 차이를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제가 단지 남독...

#게시자 : 임*우

소 속 : **학과

E-mail : 조희수 : 156

게시일 : 2001-06-01 종료일 : 2001-06-15

찬 / 반 : 1 / 0

[답변] 3년전에 군대를 제대했다...

행님 강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갑시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비군 나왔네요. 군사문화 재생산 받으러 갑시다.

남성들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었고 서로 열심히 의사소통하고 있었다. 비록 가끔은 감정적인 욕설이 섞여 있었지만 여성에 대한 욕설에 비할 것은 못되었다. 무엇보다 그들간의 거친 욕설은 성적인 욕설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말투와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서로를 존중(존대어, 님이라는 일관된 호칭)하고 있었으며 논리적이면서 이성적인 외피를 입고 있었다. 상대방이 자신보다 권력의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복종했다. 그러나 비슷한 논리적인 글이라도 여성이라는 젠더가 확인되면 그들은 달라진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자 선생으로서 드리는 부탁이니, 자중자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자 : 노*중

소 속 : ***학부

E-mail : 조희수 : 1009

게시일 : 2001-05-22 종료일 : 2001-06-05

찬 / 반 : 18 / 24

올 가문의 수치로고.....포포포

위의 사례는 한 여자 선생님의 글을 바로 반박한 학생의 글이다. 어떤 이는 진*권씨가 가진 권위를 말한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중적인 권위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

자의 생각에는 선택이자 같은 학교 선생님인 사람의 글에 이런 식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것은 그 글을 쓴 사람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 때문이라고 감히 단정한다. 그들은 여성과의 의사소통 자체를 거부한다. 글의 논리성의 여부는 아무런 기준이 되지 못한다. 다만 여성의 젠더를 입었느냐/남성의 젠더를 입었느냐만이 그 글의 중요성을 가름한다. 면대면 관계에서의 권력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들이 실제로 대부분 가리워지는 사이버공간에서 주체와 타자의 구별짓기 방식은 결국 젠더의 극대화라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성폭력은 젠더에 관한 문제이며 남녀간에 상이한 권력관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켜 준다.

셋째, 그러나 성적인 폭력과 성별에 대한 폭력은 무관하지 않다. 성적인 욕설과 성적인 위협은 여성이라는 젠더와 젠더와 무관한 섹슈얼리티를 동시에 통제하고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젠더적 영역은 섹슈얼리티의 영역과 교차한다.

#조희수 : 113

글쓴날짜 2001/04/26

헛헛!!

나 이학교 걸레를 몇명알지?

합줄래? 오야~ 바로 다리발리고 놀지...

이년들 보통걸레들이 아니잖람...

직업여성? 저리가라하는 놀라운 테크닉까지 겸비...

항상 아랫도리가 달아 있지...

이런뻔뻔들을 보구

이학교 여대생은 전부 왕갈보 걸레들이라고

난 이제부터 생각할란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는 손*오 님이 잘못했다.

과연 월장뻔뻔을 빠순이에 비교할 수 있는걸까?

적어도 그들은 몸을 팔지연정 웃음을 팔지연정..

월장처럼 남의 아픔을 모른척하는 물지각의 소유자

혹은 자신들의 잘못은 죽어도 인정하지 못하는 속좁은

인간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은 오히려 남자의 마음과 몸을 위로해준다.

정*미학우는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과연 자신이 빠순이보다 나은점이 무엇인지?

남성들은 자신들의 남성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섹슈얼리티의 영역에 침입하며 여성의 성적 통제와 규제방식을 통해 역으로 자신의 남성다움을 확인받고 과시한다¹²⁾.

12) 국내 모 통신내에서 [화냥년]이라는 한글ID 소유인이 대화방에서 대화도중 제3자(가해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로를 받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으며 이 사건은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공론화와 일반인들의 의식을 한차원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받는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실공간 속의 남녀관계가 사이버공간 속에서 재현되는 방식과 유사하게 남성들은 사이버공간 속에서 여성과 관계맺기하는 방식을 현실공간으로 가지고 가기도 한다. 그리하여 사이버공간 속의 성적폭력은 현실로 실현된다(혹은 현실로 실재화될 것을 암시함으로써 여성의 삶을 위협한다). 이는 현실공간 속의 여성의 자유로운 행동에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크므로 명령 폭력이 실재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이버 성폭력이 결코 가상공간 속의 허구적 현실이 아님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

#조희수 : 127

글쓴날짜 2001/04/28

내일 청동회 회원

예비역 해병대 부산대에 투입되다....

각오해라 가스나아

무심긴 무선 모양이군...

이병단 이미 널리 퍼졌단다...

이 파장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구나

곧 텔레비에서 잠바 뒤집어 쓰고 줄줄이 굴비위듯이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볼수있겠구나...

그럼

밤길..조심해라.."

길목에서..지키다가..확"

뒷조사하니깐..니..쓰발년..니..생일이

1976년 11월 30일이더군..

인생이불쌍해서..이름은..안.밝힌다..

#게시일 : 2001-05-14 종료일 : 2001-05-28

참 / 반 : 11 / 21

[메모:**(가해자)] 화남길 하겠는지??

/memo **(가해자) 시로 #

**(가해자) 회원에게 온라인메모를 전달하였습니다 !!

[메모:**(가해자)] 이리와...가슴을 뺏고 싶어..

/memo **(가해자) 너겨 다 갈무리 하고 있으니깐 한번만 더 뽀뽀내면 죽인당 #

**(가해자) 회원에게 온라인메모를 전달하였습니다 !!

[메모:**(가해자)] 에라이 환냥년아! 니 예미년 달아서 환양질 이니? 질레년!

[메모:**(가해자)] 어디 밥쳐먹고.. 할지랄이 없어서 저지랄을..니 예미년이 불쌍타 이년아

피해자는 여성을 단지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남성중심사회에 항의하기 위한 의미로 역사적으로 '환냥년'에서 기원한 [화남년]이라는 아이디를 선택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바로 갈무리한 파일을 해당 통신회사의 신고센터에 신고하였으나, 신고센터는 가해자에 게 1차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피해자 유발책임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아이디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한글아이디를 삭제조치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중심으로 [화남년]사건 공동 대책위원회가 결성되고 위와 같은 신고센터의 대응을, 누구라도 자신의 위모나 가치관, 기호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받아서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원칙을 무시한 처사로 규정하였다. 이후 몇차례 논의과정을 통해 신고센터는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사과메일을 발송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응답이 없을시 아이디를 중지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또 운영자측은 여성이용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음사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어떠한 아이디를 가졌든지간에 누구라도 자신이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통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일보한 결정으로 평가되고 있다(한국 성폭력 상담소 <http://www.sisters.or.kr/menu/cyber.html>).

정*미씨.....마녀.....

#밤길..조심해이소.....

정체가 드러나고 있쓰.....

아마도 곧 얼굴을 마주할날이 있을꺼같트.....

위장하고 나타나지.....

긴장하이소.....ㅋㅋㅋ

#니네 학교 홈페이지 가봤더니 형사처벌에 관해서 알아보겠다는 가짜한 예비역도 있더구만. 좋겠다. 동문한테 고발되서 감방에 처박히면... 잘해봐라. 감방에서 뽀뽀 다이어트나 실컷 해보라구.

그러므로 사이버 성폭력은 '성적sexual인 폭력'일 뿐만 아니라 '성별gender에 대한 집단적 폭력'이며 언제든지 현실 속에 실재로 구현될 수 있는 '성폭력'이다.

IV. 사이버 성폭력의 원인

필자는 사이버 성폭력의 문제를 개인 남성의 문제로 귀결시키고 싶지 않다. 가해자 남성 일인에게 그 책임성을 묻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더러운 곳을 피해서 다니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리하여 중성적인 아이드로 자신의 성별을 숨기던지 기술적 습득을 통해 피해를 줄이거나 고발율을 높이려고 하는 일반적인 대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삼가거나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의 성폭력 유발론, 내지는 책임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남성들은 늘 여성과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존재인 그들이 집단적인 가해자가 되는 방식의 근본적인 원인을 말하고자 한다.

1) 사이버공간 속의 평등한 의사소통 방식의 부재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 어떠한 방식으로 타자와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때로는 얼굴표정으로, 때로는 언어적 표현으로, 혹은 육체적인 방법으로 타인과 소통한다.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아 왔다. 폭력이 무엇인지 타인에게 어떠한 위협을 입히는지 잘 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성 중 일부분이 가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인해 그러한 합리적 소통방식을 포기하는 행위가 바로 사이버 성폭력이다. 물론 사이버 사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우리에게 없었다. 너무나 갑자기 주어졌고 갑작스럽게 펼쳐진 신세계는 '나'라는 주제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결국 사이버 공간이 인간관계의 확장과 새로운 관계맺기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사이버공간 안의 의사소통 방식과 관계맺기 방식에 근본적인 질서를 고민해야 한다. 그러한 성찰적 지점의 부재가 결국 남녀간의 어긋난 의사소통 방식을 결과한 것은 아닌가?

2) 현실공간 속의 남녀간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

사이버공간 속의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현실공간 속의 남녀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남성에게 늘 여성이란 존재는 마리아 아니면 창녀였다. 그들은 사랑하는 특정 여성을 제외하고는 다수의 잠재적 성적 대상

만을 의사소통의 상대로 둔다. 물론 두 가지 부류의 여성을 대하는 의사소통 행위에 명백한 차이가 존재한다. 수호천사나 흑기사의 입장에서 보호해야 될 여성과 의사소통 하는 방식과 일방적인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여성(그래도 마땅한 여성)에게 말걸기 하는 방식은 남성의 의식 속에 분열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두 가지 부류의 여성이 아닌 다양한 관계 속에 있는 여성들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다.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여자와 존중하고 배려해만 하는 자신의 가부장적 재산가치를 담보하는 여성 이외의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조차 허다했다. 두 가지 부류의 여성 이외에는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시절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50% 이상의 여성이 공적영역에 진출해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남성들은 실제로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며 관계맺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성들과의 관계 정립을 여전히 낯설이 하며 심지어는 불편해 한다. 동료, 친구, 후배, 선배 등, 일상 속의 다양한 맥락에서 만나게 되는 여성들과의 관계설정엔 여전히 미숙하기만 하다. 더군다나 비언어적 정보가 배제되는 익명성의 공간 속에서 만나게 되는 낯선 여성들은 과연 그들에게 누구인가? 그들과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고민은 여성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들과 관계맺기 시작하는 수많은 남성들은 과연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3) 억압된 남성성의 증거

가부장 사회는 남성의 감정을 통제하고 억압하며 유지되어 왔다. 감정을 자제하고 드러내지 않는 것이 훌륭한 남성성의 기준이었으며 남성들은 늘 일방적인 명령, 규율과 규칙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교육받아 왔다. 그들은 맞고도 마음대로 울지 못하며 아름다운 것을 보고 솔직한 감흥을 토로하지 못한다. 현실은 늘 과장된 방식으로 남성성을 부추기고 권장한다. 성적으로 혹은 그들의 억압된 남성성은 익명성이 담보된 공간에서 왜곡된 방향으로 분출된다. 현실 속에서 실현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남성성에 그들은 집착한다.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는 유일한 무기가 결국은 실현불가능한 이상적 남성성의 가상적 실현인가? 그들은 욕망의 탈주선을 따라 자신을 해방시키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러한 욕망은 젠더적 규범성에 다시 발목 잡히고 그들은 역으로 젠더의 포로가 된다. 그리하여 남성성의 억압적 구조를 그들 스스로 자인하게 된다. 결국 그들의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유일한 무기는 '남성'이라는 젠더이기 때문이다.

V. 대책 및 규제 방향

사이버 공간이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자 현실 속의 억압받는 위치의 사람들에게 해방구의 역할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자유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지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상충되는 지점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어느 지점에서 타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규제할 것인가? 현재 사이버 성폭력의 규제방안을 말하고자 할 때, 사실 이러한 지점이 갖는 딜레마가 재개된다.

현재 법적으로 구성되는 사이버 성폭력의 범주는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사이버 성폭력의 범주와 괴리가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통해 타인의 ID도용문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법적,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업체의 이용자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 그 업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특별법) 제 14조 통신매체 이용음란¹³⁾에 의해 가해자를 처

벌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경우 사이버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 스토킹 등은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성보호법 등의 저촉을 받는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욕설과 폭언, 사이버 테러 등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될 법률이 없는 실정이며 사이버 스토킹도 기존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해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변혜정, 2001)¹⁴⁾.

이처럼 사이버성폭력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체계의 부재는 사이버성폭력이 신종 폭력의 한 형태임에도 이를 규제할 방안이 제대로 있는 현실을 드러내 준다. 그렇다면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것만이 사이버 성폭력 예방의 지름길인가? 변혜정은 사이버 공간의 자율적 특성을 들면서 타율적 규제보다는 자율적 규제 방안을 정교화 할 것을 주장한다(변혜정, 2001). 민간단체나 정부, 개인들 간의 역할 분담을 검토하면서 윤리 의식과 공동체 의식하에 마련된 자율적 규제 방안을 우선시 하되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도적인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근본적인 방향은 이에 동조한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사이버공간만을 위한 현실과는 다른 별개의 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예를 들어 유부남과의 '컴섹'을 간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사이버 스토킹은 현실의 틀을 적용할 것인가? 문서로 된 협박이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면 게시판을 통해 올라온 협박문은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인가?

현실의 틀을 가져오기에는 무리가 있는 또 다른 현실이 사이버공간에는 존재한다. 다시 말해 사이버 성폭력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이버공간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때로는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별개의 법률적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률적 틀을 마련하기 이전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할 권리에 대한 인식, 권리안 동시에 지는 의무의 문제와 자유와 평등,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네티즌들의 성찰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여성들은 한 공간 속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연권을 확보하고 지켜나갈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남성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인정할 의무가 있다. 물론 그러한 권리의 문제는 현실공간 속에 존재하는 남녀간의 평등한 의사소통과 관계맺기를 위한 물질 토대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다.

VI. 나가며

사이버 성폭력은 성을 빌미로 한 여성배제구조이자 성차별의 문제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반사이버 성폭력의 담론을 증폭시키고자 하였다. 개별적 남성성에 대한 일회적 처벌을 끌어내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문제제기이다.

사이버공간 속에서 성폭력의 현실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 토대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현실공간 속의 남녀 불평등의 문제와 여성배제구조는 사이버공간 속에서 되풀이되고 재생산된다. 사이버공간 속의 욕망이 성별화 되어 있다면 역시 현실 속의 욕망의 구성방식도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폭력

1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그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4) 이른바 '김현일' 사건은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한 인터넷 사이트의 경제 소도임에서 한 여성을 5개월 동안 집요하게 스토킹한 남성이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사건으로, 그는 게시판을 그 여성의 이름이 거론된 110여 개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그 내용은 조롱과 노골적인 욕설, 여성비하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한다(여성신문, 2000/7/21, 2000/8/18).

과 의사소통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현실 속의 의사소통 방식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 속의 남녀문제가 구성되는 방식을 문제시하면서 동시에 사이버라는 새로운 희망에 대한 끈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막 구축되기 시작한 새로운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나가는가, 그 내용성을 어떤 방식으로 채워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들의 몫이다. 욕망을 느낀다는 것과 그 욕망을 일방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는 것, 자신의 욕망을 타인에게 강제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나의 욕망과 쾌락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욕망과 쾌락도 존중받아야 한다. 존중과 배려는 인간관계의 기본이며 공존을 위한 기초적 전제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라는 새로운 공간에 인권이라는 절대적 명제를 깊이 새겨 넣어야 한다. 현재는 희망을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나 미래의 희망을 구축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고길철, 2000, "채팅, 자유의 새로운 영토", 『문화읽기: 뼈라에서 사이버 문화까지』, 서울:현실문화연구
권수현, 1999,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섹슈얼리티강의』, 서울:동녘
김성국, 1998, "정보사회의 정치생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정보사회의 이해』, 정보사회학회 편, 서울:나남
김현희, 최문경, 2000, "정보사회와 젠더", 제 17차 춘계여성학회 자료집
배은경, 1999, "여성의 몸과 정체성", 『새여성학강의』, 서울:동녘
변해정, 1999, "성폭력 의미구성과 여성의 차이", 『섹슈얼리티강의』, 서울:동녘
——— 2001, "사이버 성폭력, 어떤 대책이 가능한가?", 사이버 성폭력 토론회 자료집
사이버성폭력추방네트워크, 2000, "사이버 성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사이버 성폭력 토론회 자료집
성시경, 1999, "사이버 스페이스와 성차 이데올로기", 신라대 여성연구 논집 제 10집
신상숙, 2001, "성폭력 담론 지형의 확장 그 쟁점", 이화 62집
심영희, 2001, "사이버 성폭력 어디까지 왔나?", 사이버 성폭력 토론회 자료집
양미연, 1999, "사이버스페이스는 여성에게 해방의 공간인가, 억압의 공간인가?", 부산대여성학 연구논집 8권 1호
——— 2000, "사이버스페이스에 나타난 여성성과 남성성",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윤세경, 1999,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윤택원, 2000, "사이버공간에서 여성의 자리매김", 제 17차 춘계여성학회 자료집
이선영, 1999,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여성배제 구조와 저항에 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나영, 2000,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교차지점에서 본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문화와 여성』, 서울:한나래
정보사회학회 편, 1999,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나남
정정수, 1999, "온라인 성희롱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추병환, "정보통신 윤리의식의 확산 방안" <http://www.cyberculture.re.kr/>
최은정, "온라인에서 여성으로 살기" <http://www.cyberculture.re.kr/>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0, 『인터넷 이용자 실태조사』
한국전산원, 2000, 『정보화백서』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2000년 정보생활 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홍성태, 1997, 『사이보그, 사이버컬처』, 서울:문화과학사
——— 2000, 『사이버사회의 문화와 정치』, 서울:문화과학사
황정미, 2001, "성폭력 정치에서 젠더 정치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 <http://www.gender.or.kr/>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자아와 정체성 <http://www.cyberculture.re/>

월장 사건을 통해 본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

리나(부산대학교 여성주의 웹진 '월장' 편집인)

부산대학교 여성주의 웹진 '월장'은 4월 25일 창간호에 '도마위의 예비역'이란 기획특집 기사로 인해 온갖 종류의 사이버 성폭력을 당했다. 이러한 사이버 성폭력은 익명성과 텍스트를 통한 방식의 폭력이란 점에서 그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사이버 성폭력은 단순히 기분 나쁨 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여성의 수치심이나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실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익명성)이란 점을 이용하여 온갖 종류의 욕설과 협박을 너무나 쉽게 저지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월장 사태에 있었던 많은 사이버 성폭력의 종류를 분류하고 나열하면서 그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 보고자 한다.

I. 욕설

대부분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을 퍼붓고 있다. 여성은 남성보다 욕이라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많이 들어볼 경험도 적으며, 실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없다. 그리고 알고 있는 욕도 남성과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욕들은 실제 여성에게는 폭력적으로 다가오며, 그것으로 인해 게시판이나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지 않게 되거나 글을 쓰는 것이 어색하고, 또한 그 언어의 폭력성을 심각하게 느끼게 된다. 또한 이러한 욕들은 단순히 기분 나쁨 그 이상을 넘어서 개인에 대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며, 그러한 것을 의도한 욕들이 실제 많다. 즉, 예비역을 욕한 이유가 예비역에게 강간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분 나쁨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설은 한 대상을 넘어 그 대상이 있는 공간이나 가족 등에 대해 공격을 가하는 상황들은 가부장제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욕설들은 익명성 즉, 익명 게시판일 때 특히 심하며, 이 글들은 월장 게시판 월장 커뮤니티 게시판과 메일에서 발해진 것이다.

① 개인에 대한 공격적인 욕설들

1312 번글 제목: 진단서 글쓴이: 정신과 전문의
당신은 심각한 정신병에 걸려있습니다.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신은 남성 혐오증과 과대망상증 및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치료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병은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불치병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정신병원이라도 찾아가서 바랍니다. P S - 사실 이런 극비인데도 이런 병에는 민간 요법으로 남성의 *액을 복용하면 금방 낫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꼭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48 번글 제목: 이 동태갈들이 글쓴이: 동태갈들

월장인가 x행인가 쓴 사람들은 동태갈 들어요. 초등학교부터 다시 논리적 사고가 먼지 때우든지 정신병원에서 가서 여성으로써 피해 망상증 환자가 아닌지 검사나 해봐라. 좇 좇 동태갈들
1255 번글 제목: Re:홍... 풍당하군요. 회원님들 죄송합니다. 글쓴이: 지달23614287@hanmail.net
말 하는거 보니까 아직 정신 못차렸네. 미친 똥년 같으니. 이런게 아니라 부산대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리야겠군. 이런 계수 없는 월장 개새끼들! 헉새들
1154 번글 제목: "난 저마의 똥개훈원은 안려와서 잘 몰라 이 똥개들이" 글쓴이: 우후

씨방... 씨방... 똥들을 100무더기준비해서 아가리에 처넣고 싶어... 똥개훈련.맞는말이야. 근데. "난 그따위건안해봐서 참몰라" 물라서 미안해" 이렇게 써가지없는글은 안써줬으면 좋겠어.

1025 번글 제목 : Re:니 입장? 글쓴이 : 똥나는 자두!

지랄이다... 하안자두 좋아하네! 씨방 뒤져 미친년아!

1154 번글 제목 : "난 저따위 똥개훈련은 안해봐서 참 몰라 이 똥개들아" 글쓴이 : 우후.

씨방... 씨방... 똥들을 100무더기준비해서 아가리에 처넣고 싶어... 똥개훈련.맞는말이야. 근데. "난 그따위건안해봐서 참몰라" 물라서 미안해" 이렇게 써가지없는글은 안써줬으면 좋겠어.

402 번글 제목 : 씨발년들 글쓴이 : 95

아이 개같은 씨발년들아... 너기 학교병진답시고 저놈때 우린 수운겨울 한밤중에 보초서고 그랬다. 너기가 멀 안다고 예비역운운거리냐? 얼굴에 벌건 화장 찍찍 찍어바르면 얼굴이 다 가려져서 니 좆대로 해도 되는줄 아냐? 취지도 좆도 못하던 것들이 대학와서 등록금만 좆나 갖다 내버리는 개 찰레기 같은 것들... 학교에서 얼떨대지마...

제목 : ㅋㅋㅋ 여대생들 별수없군... 글쓴이 : 느그들 보지다
원래 어머니가 아닌 젊은년들은 교활하고 상대방 태러할지 모르는 비열한 것들이야...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들 밖에 몰라.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 거슬리는것은 입에 개거품 물면서 젖어대면서 정작 자신들이 남에게 잘못한것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끝까지 옳다는 독선을 보이는게 여자야... 그렇게 속좁고 교활한게 여자고... 남자것을 시시 탐탐 노려서 뽀진지 뽀여가려는게 여자야... 하지만 그대봤자 남자 손안에서 노는걸... 여성운둥? 그거 남자들의 배려가 없다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걸. 여자들 원래 그런년만 니그리운 우리 남자들이 이해 합시다... 젊은년들 몰라미는기 한두번인가? ㅋㅋㅋ 강 웃고 남김시다... 젊은년들이 괜히 무시당하는게 아니지당요. 어차피 계속 무시당할 년들인데 뭘... 어머니들을 제외한 젊은년들은 다 요물이고 남자들의 최물물일 뿐이야... 하하하

113 번글 제목 : 시X...이거모고? 글쓴이 : .
가만...학겨 자게 왔다가... 성질 나서 왔는데... 더 성질 나게 하네... 여기 학겨에서 강...준 주스로 만들었다 본래... 조만간...여기 사고 쳐주마... IP 추적...소용없다...하지마라... 학겨에서...하고 뽀져니까... 시X...남녀평등 주장하는 년들이 그렇게 평등하고 싶다면... 뽀벼라...남자처럼...독같이 대해주면서... 질라...귀방망이 썩사 줄테니... 뽀로...저근저근 뽀아주만... 힘 약하다고...한뎡었다... 평등 좋아하는 너기들이니까...

② 개인이 속해 있는 공간과 가족에 대한 공격

1089 번글 제목 : 제수없다! 글쓴이 : 나두 여자다

니네 모하나... 질라 제수다... 부산대학교 가면 다 그런 뽀신같은 것만 하나? 괜히 학교 욕먹이지 말구 공부나 똑바루 해

1238 번글 제목 : 뽀 같은 월장! 글쓴이 : 니미협 월장
1212121211221@hanmail.net

개 찰레기 같은 월장 편집자들 봐라! 너희들 뽀에 술마시고 지랄한다. 너희 예비,예미가 그렇게 가르치든... 미친년들. 부산대 뽀예를 뽀어뜨린 씨발년들. 나가 디저라. 미친 호무새끼들...

1142 번글 제목 : Re:그니깐 논리적으로 답해보라고이 씨발 개같은

은년아. 글쓴이 : 오니치즈루
진짜 뽀악을 하네. 이런 기생년 뽀보지에서 난 것이 출생부터가 알만하다 예비역이 뽀? 니네 예비까지 써잡아 욕하는 살모사같은 년들.

310 번글 제목 : 바보들이 뽀악을 하는구나!!! 글쓴이 : 예비년
대한민국 젊은년들이 다 그렇지 머... 특히 돌대가리 뽀악 성격장 예자 추니 뽀미들...ㅋㅋㅋ 거짓말 안하고 이런짓거리 하는 년들 남자한테 뽀본뽀 당했거나 가정환경에 문제 있는 년들이다... 어릴적부터 뽀이라고 구박받고 자랐거나 예비 오퍼 남자형제 없는 집 애년가...아님 얼굴이 뽀생겨서 언제나 남자들의 조롱속에 살아온 그런 년들이다... 생각해보면 불쌍하지...남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사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성격이나 환경적 결함으로 인해 스스로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는 년들...으허허...근데 뽀미다...여성운둥이라고도 제대로 하면 말은 많겠다...이따위로 하면서 자기들이 옳은양 상대방(남자든 ○예비역이든)의 입장은 생각 못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 여성동지" 켜리 뽀쳐서 지랄 뽀장...으허허...뽀미니즘은 휴머니즘의 하나다...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사랑에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근데 남자들에게 사랑을 뽀받는 년들이 뽀해 뽀상에 젖어서 남성 적대적으로 나가는데 대한민국 돌대가리 뽀미들이다...니네들의 글 질다 뽀미니즘하고 상반없는 거 아예? 그냥 괜히 남자들에게 화를이 한것 뿐이야...뽀생년으로 대어남게 뽀해하지? 솔직히 말해봐...부모가 원망스럽지? 으허허하하하하하하 아무튼 여성운둥이라고도 제대로 한다면 콀까 인정글라고 했드만 이따위로 하니 남자들에게 무시당할수 밖에 없지...니넨 안해...어머님들을 제외한 젊은년들 남자들의 최물물에 지나지 않아...니네들이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져...하하...

③ 여성의 생식기와 관련한 욕설

제목 예비역들 다 뒤져라"
씨바, 예비역 다 뒤져 버려라" 부산대 예비역?? 뽀신을 아냐? 이런년들이 판을 치고 지랄 뽀치는네. 어어 가서 보지라도 젖어버려야지... 아님 보지에 수류탄을 우겨 넣던가... 뽀년들...누구뽀시 학교에서 이지랄인데... 뽀 보지를 사시미로 콀서젖어 뽀겨야 해... 뽀년들...지 예비역한테 이따구라 교육을 받았나 부지... 개 씨발년들...어디 함 진뽀 가서 현역들을 화장실 노릇이나 함 것이지... 씨바 보질 젖어 뽀겨야 해...이 개씨발년들은... 부산대 씨바...졸라 뽀안해 뽀는데...실망이여 씨발년들... 뽀 보질 오바로크 쳐 버려야 해...씨발년들...

제목 뽀 보지를 제 버려야 해...뽀년들...
젖어뽀겨야 해...이 뽀년들 보지를... 아예 젖어버리고 그 사이를 오바로크 쳐버려야 해... 씨발...안뽀 보지에 수류탄을 우겨 넣던가... 씨발년들... 졸라 옛같은 개 씨발 보지들...

제목 아이 씨발년들아!!!!
진짜 뽀년들이다...네들 예비들이 네들...남아가지고 뽀역국치먹은지 생각하니 내가 다 오바이트 좆러 이 씨발년들아 모녀를 다 조리들려버려야 해... 뽀년들... 뽀 보지에 뽀리들을 우겨 집어 넣고 피 나오나 안나오나 뽀야 해... 씨발년들...뽀...그냥...아우... 개 씨발년들...이 씨발년들 뽀시 내가 그렇게 뽀여쳐야 했더니... 뽀년들 대검으로 보지를 뽀 젖어뽀기고 싶다...어이 이 씨발년아... 개씨발...부산역 앞에서 줄 서서 강간 뽀겨 버려야 해... 씨발 이리니 강간이 없어지지 않는거...내 씨발 이년들 보지에 수류탄을 우겨넣고 싶어 미치겠

다...어디서 수류탄 하나 뽀 구하나? 이 씨발년들...뽀지뽀를 다 뽀워 버려야지...뽀년들
제목 내 예비가 그리 갈키든? 이 씨발년들아? 내 예비 닮아... 이 씨발보지를 보소... 보지를 오바로크 쳐버려야 해...이 씨발년들... 어우...이 씨발년들...진짜 보지를 뽀 젖어뽀기고 싶다... 뽀년들이 뽀야...개 뽀년들... 주례뽀 앞에서 보지나 뽀아라 이 씨발년들아... 그 대가리에 뽀만 찬 년들이...뽀 공부뽀 해? 씨발년들...뽀질 젖어 뽀겨야 한다니까!! 이 씨발년들아... 내 예비예미가 뽀쳐서 네들 날았다는 게 좆라 열 받는다. 씨발 내 예비 자지나 뽀아 이 씨발년들아!!

제목 씨발
니기미 씨발 미친년 아이가... 쳐 지기뽀도 온하고... 예비역들하고 뽀구리할때 보지 뽀렁거리면서 기뽀뽀하고 신음소리 내기만 해라... 요이 씨발년들... 보지를 뽀 집어제뽀벌려다...

154 번글 제목 : 흥... 가만히 생각해보나... 글쓴이 : 지나가던 예비역

그래...예비역... 니가 말하는 예비역이 실은 이유대로 해주지... 내 뽀상앞에서 이뽀소리 한뽀 해봐라 씨발년아... 아가리와 함게 보지를 뽀 젖어버려다... 뽀리할때 뽀문은 살뽀이 뽀파 뽀아지게 해주마... 뽀구닐도 같이 젖어주지... 니넨 좋아하는 예년섹스 뽀하게 해주마... 내 뽀상앞에서 이뽀소리 콀부르면 니 아가리에 내 좆뽀아주마... 뽀할년... 뽀기전년... 뽀 제물게 강년이 콀그리 뽀고 아가리에 뽀아주마... 뽀 보면 좆도 씨발 얼굴은 개 찰레기... 뽀생남자...손한뽀 뽀잡아 뽀겨 같이 뽀간년이 이 지랄들이지... 개같은년... 뽀뽀년주고 학겨 보네나트만 이뽀 것이나 하고 있는거 니네 부모님은 아시나? 니네 어머니 늙은 뽀 팔아 뽀돈으로 다니는 학교 열리미 공부해야지 씨발년아... 쓰레기 쳐우는 아버지 강라도 뽀고 뽀 뽀고 얼굴 뽀아 뽀기는 불가능하져? 기지같은 년... 니나 뽀해라 씨발년아... 뽀 뽀뽀지개 군 뽀생 하든 예비역 뽀지 알고

II. 협박

가장 심각한 유형이다. 실제 한 명을 거론하여 테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글들도 많으며, 개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글이나 신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글들도 많다. 신상의 공개가 어떻게 협박이 되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도 있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은 실제 어떠한 테러가 있기를 바라는 행위이던가, 아니면, 그 테러에 대한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행위이다. 또한 월장은 홈페이지를 폐쇄할 것에 대한 협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것은 제적, 명예훼손등의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논의를 수반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홈페이지 폐쇄의 요구는 협박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이며, 또한 자신이 조금 거슬리는 이야기는 받아드리지 못하는 한국의 다양성에 대한 인지 부족의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① 테러의 의지를 밝힌 글과 신상에 대한 글들

1307 번글 제목 : 너무하네... 글쓴이 : 예비역이다.
우리가 좋아서 군대가고 제대해서 예비역 된것도 아니고, 여자에 대한 성폭력은 당연히 남자가 하는걸데고, 남자라면 거의다가 군대를 가게 되니 자동적으로 예비역이 되는건데... 그제 예비역이라서 그런건가? 그냥 남자라서 그런거겠지... 그리고 성폭력성폭력 하는데 그제 얼마나 심하더구? 간혹 몇몇이 정말 심한것 한뽀 가지구 전부 다 그런것처럼 유행나게 뽀는데... 대저보 조용히 조

④ 강간과 성폭력을 연관시킨 욕설

1000 번글 제목 : 음... 글쓴이 : 음...

니 걸레제 예비한테 좆라 뽀았는갑네.

378 번글 제목 : 여...미야... 여...미야!!!!

언제 한번 젖이 모여 오뽀하게 콀수나 하자!

317 번글 제목 : 이 시발년 구녕을 뽀 잡아 제뽀라

어디서 강간당하고 예비역한테 화풀이거. 이 시발년 태러지 드시 나간 &51444트나? 돈 많은 부모 밑에서 귀하게 자란 씨발년 같은 나라구

176 번글 제목 : 부산여대생은 전부 강간 걸레들이다?

뽀뽀!! 나 이하고 걸레들 뽀 뽀할지? 함글래? 오야? 바로 다리뽀리고 뽀지... 이년들 뽀뽀걸레들이 아니길랑... 직업어성? 콀리가하하는 놀라운 테러년까지 겁비... 항상 아랫도리가 달아 있지... 이런 뽀년들을 보구... 이하고 여대생은 전부 왕강간 걸레들이라고 난 이 콀부터 생각해나...

250 번글 제목 : ps:추신입니다 글쓴이 : 뽀park@com.net
아 그리고 성폭력 그거 아무나 뽀하는거 아니다. 뽀년이 그정도 뽀모나 뽀메가 되나 그것도 뽀모이고 뽀메 따라려야 뽀하는 거 아 뽀미들이 뽀걸다 뽀라네 느것을 한 트릭 갈다려도 내다 뽀린다 이년들아.

용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도 열받는데 뽀 뽀한 것거리까지 하네... 이런거 만들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다? 이러면 우리가 조용히 네...하면서 앞으로 뽀뽀로 하겠습니다...그렇지 않나? 아...침에 욕으로 도배를 했다가...지금 다시 적는건데... 너 누구지도 이뽀 다 뽀해졌고... 앞으로 조심해...

제목 아... 강... 너 22살이나?

아... 너 진짜 22살이나? 어리구나... 앞으로 날 뽀면 오빠라고 뽀려라...

제목 그 하얀자두가 뭐가 한테 이렇게 말해줍시다.

우리가 니 시다바라기? 죽고싶니??? 요즘 자두가 엄청 행태로 뜨고 있는데 이 하얀자두라는 예도 없기가 아닌 비방글로 사이버에서 한번 뜨고 싶었는가 보군요, 기가 막힙니다.

388 번글 제목 : 이x들이 글쓴이 : 전설의 쌍팔년군번
이것들이 정말 죽고 잡나?? 올 전설의 쌍팔년군번들이 똥쳤다. 가만 안 두겠어!

1303 번글 제목 : 잘 알도 온화면서리... 글쓴이 : 나도...

지나가다 칼맞는 수가 있을 거요.

1272 번글 제목 : 정통회 내일 부산대에 투입되다

내일 정통회 회원 예비역 해병대 부산대에 투입되다..... 각오해라 가스나아

제목 :남자라며 의사대더니...조잔하게 이렇게 말로만 욕하는군
어제 뭐가 썩히 썩혀지지 안티나?? 호호 이따 만나겠구나.....그럼 이따 보자

1332 번글 제목 : 아직 너 안죽었나 글쓴이 : 정대진
아 하얀자두 너 아직 안죽었나... 부산대 예비역을 되게 인간성 좋은가 보군 이렇게 인간성 좋은 예비역들을 욕하다니..아직 안죽은거 보나..너 명준도 좀 되긴 되나보다.... 아 너 무슨동네 사나. 나랑 비슷한 동네 살면 나랑 다이다이로 좀 만나자 난 부록동 사는데... 너 어때 사나...좀 만나자...만나서 맛탕 좀 드자... 관리자가 게시판을 글을 땀때도 지우자니...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높인다는 여성들의 웹진이란곳이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무참하게 밟나...과연 너희들이 진정하게 여성들의 소리를 드높이는 사이트를 운영할 자격들이 있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냐...너희들의 주장을 꼭 바로 펴려면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시켜라...부디 하얀자두 전 화번호랑...김주소름 밝혀라...조사버리게...아예 학교다닐수 없을정도로 다리를 조사버리라...너 죽었어...각오해 그리고 부산대 예비역 여러분 신사적인것도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지킵시다

1210 번글 제목 : 씨클년은...정소차로... 글쓴이 : 나다.이년아 나다.이.씨클.년아. 월장이고 모고 브래기.같은.글.적지.말거라. 여군.함.갔다.와서.이런.소리하면. 다.수감한다. 알겠나?? 너는.내가.볼.때. 예비역한테.차이고.분류이하는.씨클년이다. 뽕집.조심해라... 김복에서.지키다가.확... 뒷조사하니까..니..쓰팔년..니..생일이 1976년 11월 30일이더군... 인생이불행해서..어름은..안.뽕한다

제목 : 정** 어제는 집에 늦게 들어가더군.. 글쓴이 : 강간범
내어제 부산대러가서 작업들어간다고 했지? 어제 집에 늦게 들어가더군...간이 부었어 어제는 정찰만 했다 그림 오늘저녁에 보자

988 번글 제목 : 정** 이년 ... 글쓴이 : 군발이gong@net
정** 이년 너 많이 컸다. 나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제대 하면 제일 먼저 네인 박살을 낸다. 이제 집대가리를 상실했어. 네가 쓴대로 군대가 어떤 곳인지 확실히 보여주라. 이 행 년 나 복학 얼마 안남았다. 기다려라. 이걸 봐 그냥

542 번글 제목 : 지금 여기 폐쇄하고 사과해도 이미 늦었다...정영미... 글쓴이 : 강간범

지금 폐쇄하고 백번천번 사과해도 때는 이미 늦었다 씨바 어디 할 조매라 난 한다면 하는놈이다...디져... 부산에 이런 빠가년이 있을줄 생각도 못했네 씨바 숨을라든 폭목숨이라...

제목 : 99학번 신방과 정영미 보아라 글쓴이 : 강간범

너 밤에 혼자 씨돌아 다니면 조카 위험할꺼시다 그렇다고 원구들이랑 우르르 몰려다니도 마참가지겠지... 나의 범행대상 리스트에 니 신상 올려놔다 곧 부산대러가서 작업 게시한다... 그때 울고불고 난리쳐도 소용없다...호호호호 나? 강간7범 강간미수100건이지...또하나 나 해바라기까지 했단다...호호호호 뒤져봐라... 지금 애마다고 내려가마 기다려라

제목 : 부산대 끌어먹는 씨클년들... 글쓴이 : 민족효원

아 정영미는 빨리 파라. 빨리 사과하고 씨이트 폐쇄해라. 지금 학교 끌어먹는것이라는거 모르나 이와 5척처럼 니 이름 공개라도 되면 정말 위험해진다. 이런 걱정되서 하는 충고다. 진짜로. 니 신변 위협해지지는는 둘째치더라도 학교 계명신 당하는거 누가 책임질래? 정영미야... 월요일부터 마 학교 나오지마라. 더 사건이 커지기 전에 이 사이트 폐쇄하고 학교와 관련된 모든 링크 끊어버리고 부산대라는 말을 쓰지마라 폭팔한다. 몇년다나보이 이제 애교심증 생길라하니까 별 그저같은논이 다 설치해

402 번글 제목 : 씨발년들 글쓴이 : 95

아이 개같은 씨발년들아... 너가 학교명진답시고 처음때 우린 추운겨울 한밤중에 보초서고 그랬다. 너가가 멀 안다고 예비역운운거리냐? 얼굴에 별간 화장 찍혀 찍어바르면 얼굴이 다 가려져서 니 좆대로 해도 되는줄 아니? 취직도 좆도 못하던 것들이 대학에서 등록금만 좆나 갖다 내버리는 게 쓸데기 같은 것들... 학교에서 열행대지마.....

388 번글 제목 : 이x들이 글쓴이 : 전설의 쌍팔년군번
이것들이 정말 죽고 잡나?? 올 전설의 쌍팔년군번들이 똥쳤다. 가만 안 두겠어!

379 번글 제목 : 월랑운영자.어제 조매라...미안! 글쓴이 : ...

어제 군대 고참들하고 동기들하고 술먹다가 이야기 나왔는데. 울고 참한명이 ... 뒤를 조심해라. 학교 올라간다고. 이 사람 성격이 좀 우끼거덩.. 온원장에서 좀 잘나가는 사람이거든.

후호호.미안~ 내가 그사람한테는 말을 안해야하는데. 니 당분간 숨어지내라. 걱정되서 그러니까. 항상 뒤를 조심하구. 사회대일에 액후그랜저 있음 폭목 숨고 안그런 정말 참해가서 울고불고 난리칠지도 모르거덩. 그사람 작년에 어떤 미친논이 술집에서 행패부리는거 잡아다가 앞에 사시미할 올려놓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네. 그는... 사색이 되가지구. 오이구. 너 더 할지몰라... 우리부대가 좀 마니 빠진곳이었거덩. ... 난 이만...정말 미안해. 안녕

371 번글 제목 : [1차검]4월 29일 17시 30분까지 폐쇄하시오 글쓴이 : 국방부장관

공개사과 후 문닫고 휴학하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공수특전대 특수대원 3명과 해군UDT대원 5명 해병대 수색대대 최정예병 5명을 선발해서 신방과 건물을 폭파시켜 버릴것시오. 미리 말해두지만 너가 오후있으면 아마 군대에서 나가 가장 싫어하는 군마리에게 맞아죽든지 제대했 다면 예비역한테 맞아죽든지 저지당해죽을 것이오. 그리고 항상 걸어다닐 때 크레모아 조심하고 자기 전 항상 아비저나 어머니 한테 불침번 서달라고 부탁해주는게 신상에 좋은 것이오.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366 번글 제목 : 정**를 공개하지... 글쓴이 : **팡

**파 **학번 안경 쓴 박지윤을 달았다고 함 이상..

365 번글 제목 : Re

제목 내일부로 이 사이트는 내가 없겠다...하하하

제발 정신들 차리고 이런거 그만하는 게 좋을듯 합니다. 좋은 말로 할때... 예비역을 뼈박한 눈으로 굶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왜 예비역을 주제로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신방과내의 예비역들이 그러하다면. 당신네들이 좀 알아서들 하슈... 저번 그 이상한 교수 부터 시작해서. 신방과 뭐 잘못났? 내가 알기엔 별 불임도 없더만... 하여튼 어디서 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 아님 내가 직접 데 테러 들어갈라니까...

335 번글 제목 : 신방과 정** 글쓴이 : 월랑단골

주인장이 **과 정**씨라는거 까지는 게시판을 통해 알겠는데...주인장 아시는 분은 자세한 신상공개좀 바랍니다. 이만큼 시선을 끌었다면 신상공개 정도는 필요한거 같은데요.사건같은거 있으시면 더좋구요 꼭 부탁합니다.얼굴 안보면 잘 못잡기 같아요.

312 번글 제목 : 정**가 어떤 X야!! 글쓴이 : ...

비한 발먹고 할일없이서 군대 갔다온줄 아니? 글고, 누가 예비역이 감투라도 된다고 하디? 후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당신네 그 몰나 신방과 예비역들이겠지... 아마 적어도 예비역을 감투로 생각하고 다닌 사람은 없을 거야... 하여튼 비한 밤 치먹고 욕도 치먹고 싶어. 알달난 아글들이 왜이리 많으노? 참 세상 와이랄노? 지랄을 하지 말고 월랑이고 나발이고, 치아라. 정영미라고? 테러들어올라? 조심해라...

247 번글 제목 : 총보다 무서운건 펜이군요 글쓴이 : 타대생
역시 총보다는 펜이 무서운것 같습니다. 한마리의 미꾸라지가 넓은 강물을 순식간에 더럽게 만드는거랑 거의 같은 이치같은요.전 부산대 시험처서 멀어져서 다른대로 갔습니다.항상 부산대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부산대가 부러웠죠. 지금도 부산대에 대한 악감정 같은걸 말하려는게 아닙니다. 단지 그런생각을 좀 없애주신 하얀자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사람들이 이렇게 게시판에 욕해도 하얀자두님은 자기글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을겁니다.어쨌보면 즐긴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하얀자두님 이말씀 드리고 싶네요.님이 누구인지 신상명세서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하세요.그게 밝혀지는날.님은 시집 못갈정도로 바보 될지도 모릅니다. 게시판 글들 보니까.다심하면 일러대왕하고 상전제도 할수 있겠는걸요.어쨌든 하얀자두님의 건강이 심히 걱정됩니다. 앞으로도 짧게 살고 싶으면 더더욱 이단들을 많이 올려 주세요.짧고 굵게 멋지잖아요. 되게 멋 많이 따지는 스타일 같은데 제가생각한.님의 외모는 특단입것 같네요 외모로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지 못하니 다른것으로 대처해야겠조 뭐 이해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남자들한테 반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즐기세요.성폭력도 필적할한테나 하는거지 혹시 남도 성폭력 한번 당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해 주니깐. 오히려 자존심 상해서 그러시는거조. 에이 너무 심리져 마세요.살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아플때 몸조심하시고 뽕집 조심하세요.사람의 목에는 7개의 뼈가 있는데 그것이21개가 될때까지 두들기 맞을지도 모르니깐.....

304 번글 제목 : 아이 폐쇄서 글쓴이 : 알아서 머하게
귀기번다 쓰들것들이 암태나 주먹아리 놀리지만.살벌인지 하는 씨클년도 아주 아가리를 쏘아 뽕다 군대가 민주화된다고 시간이 다시 돌아오니?맹신야? 아뽕나시복사를 누군군대 가구있어 가나 너희 여성분들도 최소한 사회봉사장 장애파나 어린이 복지시설 아니면

양로원등의 일손부족한대로 2년 2개월만 다녀와바 군대도 아니고 봉살 한달월급 10000에서 14000 정도만 받고 너거들 입에서 거금과 같은 소리가 나는지. 오히려 사회봉사장수 달라고 더 큰소리 했으면 했지 밀하진 않을 꺼다. 함다 이런거 제재하면 거담엔 시바를 아주 작살내 버린다..

179 번글 제목 : 너거들 발길 조심해라 글쓴이 : 백룡회
부산대 해병전우회 총무닷 너거들 발길조심해라!! 위키발로 민상 켜었다 학교다닐때 숨어 뽕개라 뒤지는 수가 있다. 이상. 뽕썰!!

75 번글 제목 : 죽어버리고싶다. 글쓴이 : 예비역

② 홈페이지 폐쇄 요구와 법적 대응에 대한 글들

1066 번글 제목 : 열 받는다. 글쓴이 : 예비역

죽어본다... 빨리 홈페이지 없애!!

539 번글 제목 : 사과 안하면 검찰에 고발한다... 글쓴이 : 정의의 사도

누가 이따식의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서 빨리 폐쇄하거라...혹시 홈페이지 방문자수 늘려서 홈페이지 끌어먹으려고 한다면 당장 그만두시게...하루빨리 사과하지 않으면 부산대 총장에게 권한을 넘길수 밖에...그렇게 되면 당연히 퇴학처리 되겠지.그래도 사과하지 않는다면 아이 뉴스에 나올것...그러면 전상은 배리 받히지는 것.ㅋㅋㅋㅋ

년 이제 끝 장 이다.....

제목 : 삼군 본부 게시판에 사이트주소 알렸습니다.

이렇게 좋은 홈페이지를 우리들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군본부 게시판에 월장 주소와 간략한 내용을 올려왔습니다. 어? 추카해 월장. 나태들이 바라는 대로 대한민국 은 군인들과 장교들이 너의 홈페이지를 돌려주거야. 이 정도면 홍보 대박 타진거지?

134 번글 제목 : Re:월장을... 글쓴이 : 파보래키

월장을 폐쇄시켜 드릴까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만약 관 못되면 학교 서버가 다운될 위험도 있지만...그래도 폐쇄를 원하신다면...힘써 보겠습니다.. 남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 여기까지는 jack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화주세요. 계속 와서 이놈들 정신교육을 시켜야합니다. 생판대기가 드리게 공급하구만

82 번글 제목 : 월장 폐간하라 졸라 우거 글쓴이 : 졸라

졸라 우거... IP 보이나? 이거 보여? 홈페이지 뒤엎고 싶다. 해킹 그룹에 여기 제발 뒤엎는 연습해 달라고 하고 싶다 제발 웃길래..

제목 내일부로 이 사이트는 내가 없겠다...하하하

제발 정신들 차리고 이런거 그만하는 게 좋을듯 합니다. 좋은 말로 할때... 예비역을 뼈박한 눈으로 굶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왜 예비역을 주제로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신방과내의 예비역들이 그러하다면. 당신네들이 좀 알아서들 하슈... 저번 그 이상한 교수 부터 시작해서. 신방과 뭐 잘못났? 내가 알기엔 별 불임도 없더만... 하여튼 어디서 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 아님 내가 직접 데 테러 들어갈라니까...

III. 도배

쉽게 많이 쓰는 방법이며, 이러한 도배는 게시물들이 너무 많이 뒤로 밀려가 논의를 보거나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만든다. 행암으로 모이는 아래의 게시물들은 1000여 건 정도가 게시되었고, 게시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만들었다.

966 번글 제목 : 이거는 답이얌... 잘 놀았어... 씨발, 좇나 재밌네... 글쓴이 : 좇같은 씨이트아게씨발년오늘주거@zot.com
씨발년들 전 쟁 나 면 너 그 년들 부터 찍 이 고 봐 야 쓰 겠 다 찍을 것 들

Network Associates France S.A.

50 Rue de Londres

75008 Paris

France

Phone: 33 1 44 908 737

Fax: 33 1 45 227 554

Network Associates GmbH

Ohmstra? 1

D-85716 Unterschleißheim

Deutschland

Phone: 49 (0)89/3707-0

Fax: 49 (0)89/3707-1199

Network Associates Hong Kong

19th Floor, Matheson Centre

3 Matheson Way

Causeway Bay

Hong Kong 63225

Phone: 852-2832-9525

Fax: 852-2832-9530

Network Associates Srl

Centro Direzionale Summit

Palazzo D/1

Via Brescia, 28

20063 - Cernusco sul Naviglio (MI)

ITALY

Phone: 39 02 92 65 01

Fax: 39 02 92 14 16 44

Network Associates Japan, Inc.

Toranomon 33 Mori Bldg.

3-8-21 Toranomon Minato-ku

Tokyo 105-0001 Japan

Phone: 81 3 5408 0700

Fax: 81 3 5408 0780

Network Associates Latin America

1200 South Pine Island Road, Suite 375

Plantation, Florida 33324

United States

Phone: (954) 452-1721

Fax: (954) 236-8031

Network Associates de Mexico

Andres Bello No. 10, 4 Piso

4th Floor

Col. Polanco

Mexico City, Mexico D.F. 11560

Phone: (525) 282-9180

Fax: (525) 282-9183

Network Associates International B.V.

Gatwickstraat 25

1043 GL Amsterdam

The Netherlands

Phone: 31 20 586 6100

Fax: 31 20 586 6101

Network Associates Portugal

Av. da Liberdade, 114

1209-046 Lisboa

Portugal

Phone: 351 1 340 4543

Fax: 351 1 340 4575

Net Tools Network Associates South Africa

965 번글 제목 : 씨바 1000번재네, 인자잘란다, 씨발년아 웃벳어라.

ㅋㅋㅋ 글쓴이 : 안벳나개년아그래양전히벳어아지@boji.net

964 번글 제목 : 개년들못하는말이없네.세상참조아져따씨발년들담

배도피네 글쓴이 : 씨발년아게씨발년오늘주거@zot.com

963 번글 제목 : 그 스라 씨발년아, 오늘 내 너를 갈아마시러, 씨

바 침호르네... 글쓴이 : 씨발년아지금뛰나지말하네@boji.net

962 번글 제목 : 개년들못하는말이없네.세상참조아져따씨발년들담

배도피네 글쓴이 : 씨발년아게씨발년오늘주거@zot.com

961 번글 제목 : 그 스라 씨발년아, 오늘 내 너를 갈아마시러, 씨

바 침호르네... 글쓴이 : 씨발년아지금뛰나지말하네@boji.net

960 번글 제목 : 개년들못하는말이없네.세상참조아져따씨발년들담

배도피네 글쓴이 : 씨발년아게씨발년오늘주거@zot.com

910 번글 제목 : 학교는머나씨발년교육안시키고 글쓴이 : 개년

아꽃벳을보지아@hanmail.net

873 번글 제목 : 나 이 씨이트 편이얌... 1000개 채우고 자야지...

글쓴이 : 씨발년아꽃벳는년@hanmail.net

위의 글은 도배된 글들의 제목임..

IV. 회원명단 공개와 여성전용 게시판 글 유출

초기 커뮤니티에 가입한 회원들의 명단이 월장 편집인 이란 이름으로 게시되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성 회원들의 정보가 폰섹 게시판에 올라가게 되었으며, 또한 이들은 편집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집으로 게시되어 월장에 쏟아지던 폭력적인 욕설과 테러로부터의 위협을 받아야 했다. 실제 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은 월장 회원이었으므로, 그 사람들이 편집인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장 편집인이라고 올린 이유는 편집인들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신상공개 위협이었다.

여성전용게시판은 폐쇄된 게시판이며 그 공간만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그 글이 안티월장에 게재되어 문제가 생겼다. 실제 이 글을 퍼다 나른 사람은 해커라는 이름으로 올렸으나, 여성회원(실제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알 수 없음) 중 한명이며, 안티월장에 올려진 여성전용게시판의 글이 부산대 자유게시판에 게재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학교 박**에 의해 이루어 졌다.

① 회원명단 공개 이후 반응들. -실제 회원명단을 편집인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51 번글 제목 : 카카카카 ~~~~~ 지금 명단을 전부 지우고 있군...

글쓴이 : 특전사

한명씩 올린 개인명단 지금 지우고 있네 무섭긴 무섭 모양이군...

이명단 이며 널리 퍼졌단다... 이 과정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군

나 큰 테러미에서 잠바 뒤집어 쓰고 줄줄이 굴비위듯이 나오는 니

들의 모습을 볼수있겠구나... 그림

1221 번글 제목 : 무섭나? 글쓴이 : ㅋㅋㅋ

헐리건 헐리나 보네? 명단 공개되니까 겁나지? 왜 생각없이 지신

해서 자기 무덤을 파나구? 조용히 살다 보면 양아치라도 하나 얻

어 걸릴지 아나구. 연애가 하고 싶으면 얼굴을 뜯어 고치든지 아

니면 조신하게 살림이나 해줄 것이지 세상에 무슨 억만 심정으로

그리고 사냐? 니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초이즘에 희생된 니들 예

미보고 그래라 왜 쓰레기 같은 남자랑 결혼해서 나같은 벼슬이는

나왔나고? 아아 머리끄덩이 컴해서 비오는 날 먼지 나도록 개같이

맛을 집? 그리고 한마디 하겠지? 미친 년에게는 똥통이가 아.

② 여성전용게시판의 글 유출

80 월장의 여성전용 게시판의 글 14. 해커

79 월장의 여성전용 게시판의 글 13. 해커

부산대 자계에 써있는 말대로... 김지인

78 월장의 여성전용 게시판의 글 12. 해커

77 월장의 여성전용 게시판의 글 11. 해커

76 월장의 여성전용 게시판의 글 10. 해커

75 월장의 여성전용 게시판의 글 9. 해커

74 월장의 여성전용 게시판의 글 8. 해커

73 월장의 여성전용 게시판의 글 7. 해커

72 월장의 여성전용 게시판의 글 6. 해커

71 월장의 여성전용 게시판의 글 5. 해커

70 월장의 여성전용 게시판의 글 4. 해커

69 월장의 여성전용 게시판의 글 3. 해커

68 월장의 여성전용 게시판의 글 2. 해커

정말 너무합니다..우리가 여자들의 학업니까???

V. 폰섹스 게시판에 회원정보 공개

실제 초기에 공개된 회원명단 중 여성의 정보만 폰섹스 게시판에 공개되었다. 한 분은 여성회원으로 같이 정보가 공개되었으나, 이름이 남성적인 이유로 인해 폰섹스 게시판에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의도적으로 회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사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실제 대책위가 꾸려지게 되었다. 실제 정보를 올릴 때 집전화 번호까지 올려져 집까지 전화가 걸려와 한 회원은 가족 전체가 걱정하는 지경이 이르렀으며, 그 충격은 만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으로 하여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된 상태이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폰섹스 게시판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

인터넷상에 제 개인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실은 안 것은 4월 28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월장측에 연락을 위해 작제를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집주소, 집전화번호, 폰번호가 공개되어 신경쓰이기는 했으나 설마 별일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그냥 놔두었습니다.

제가 그 때 여행중이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월장에 대한 논의가 어떠한 수준으로 이뤄지는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확인해 본 결과, 그 당시 월장에 대한 논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고 있었고, 월장에 광분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저를 포함한 회원 몇 명의 개인정보는 '월장 편집진들' 이란 제목으로 여기 저기로 퍼다 날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험진 게시판과 커뮤니티의 글만을 삭제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것일까요? 저는 설마 이 개인정보들로 뭘 할 수 있으려나 생각했었습니다. 걱정되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아주 쉽게 깨어지더군요. 그러니까 30일 월요일 오후 12시 반쯤에 저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폰은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었습니다. 낯선 번호의 그 남자는 저에게 XXX씨나구 묻더군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혹시 폰다컴을 아시나구 그러더군요. 저는 폰다컴이라길래 phone.com인지 알고 무슨 핸드폰 관련 사이트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사이트에 내가 가입을 했었다 고민을 하다가 잘 모른다고 했더니 게시판에 폰섹스하자고 글을 올리지 않았느냐고 묻더군요. 어찌나 황당하고 놀랐던지 아니라며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든 생각은 정말 나쁜 놈들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열한 방법을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월장측에 또다시 연락을 취했고 그러한 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날 하루 동안 그러한 류의 전화를 5~6통 정도 받았습니다. 그냥 끊는 전화도 많았구요. 나중에는 그러한 글을 어디서 봤느냐고 문자 섹스코리아의 로즈가에서 봤다고 그러더군요. 정보가 공개된 다른 회원들-그 중에서도 여자만-도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날로 바로 성폭력상담소분과 함께 사이버수사대에 가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조서를 꾸미면서 그 날 있었던 일을 수차례 얘기하는데 그것 역시 저에게는 곤욕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놀라서 미쳐 저의 기분파위는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는데 그렇게 조서를 꾸미는 도중에 '그러한 전화를 받고 어떠한 기분이었습니까?' 라고 묻더군요. 순간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한마디로 참 더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그들이 참으로 한심하면서도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도 초라해 지더군요. 이걸 단순히 폰섹스를 하자는 전화를 받고 어떤 기분이 들었는가를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군관련 게시판에도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 퍼다졌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군부대 근처에 사는 저로서는 그리 늦지 않은 시간대의 귀가도 꺼려졌습니다. 집으로 가면서도 자꾸 뒤돌아 보게 되는 그 심정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러면서 이런 용기 없음에 대한 비참한 생각이 함께 들더군요.

집에서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여행으로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집으로 끊는 전화가 참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개인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나중해야 아셨기 때문에 별 일 아니겠거니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저를 찾는 전화도 몇 통 왔었다고 하더군요. 개인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아신 부모님께서 제게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라고 하였고, 폰번호를 바꾸라고 하였고, 조금 늦으면 걱정해 전화를 주셨습니다.

폰섹스를 하자는 전화는 그 날 이후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낯선 번호가 뜨면 혹시 하는 생각에 아주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게 되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온라인 상에서 월장에 대해 자유롭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맞겠군요. 가해자는 아주 자유롭게 월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발언하는데 비해, 저는 뒷일이 무서워서 발언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번 월장사태에서의 논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월장이 논의에 불실실하게 임했다 라고들 하지만 그건 그들이 발언 하나를 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한 두려울 수도 있는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1년 5월 22일 피해자

성폭력 사례로 보는 학내

성폭력 규제 학칙

이석 윤미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장)

I. 사이버 성폭력의 사례

II. 부산대학교의 사이버 성폭력 사례

III. 학내의 성폭력 규제 학칙이 필요한 이유

IV. 현 <부산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진단한다!

V. 학내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I. 사이버 성폭력의 사례

① 김현일 사이버 성폭력 사건

PC통신 나우누리 동호회 찬우물이라는 경제소모임에서 약 5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다. 김현일은(아이다 "유목민족") 가입한 지 며칠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이성교제를 요구했다. 이후 김 씨는 피해자가 10여회에 걸쳐 여러 차례 거부사실을 밝혔지만, 메일, 프로필 인용, 피해자 이름을 거론한 게시물 공개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김씨는 70여일 동안 동호회의 공개게시판에 "우리 자기 어딴?" "사랑이란 성행위에 대한 은유" "예술이란 원래 위장된 성욕" 등 여성비하적이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110여 개의 게시물을 올렸다. 피해자가 참다못해 공개 게시판을 통해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급기야 소모임의 다른 회원들이 김씨에게 공개항의를 하였으나 김씨는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그들에게도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끝내 모임지기가 본격적인 대응조치를 제안하는 글을 올리자 김씨는 자신의 게시물을 상당 부분 삭제하고 아이디를 해지해버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구성된 '김현일 사이버성폭력사건 대책위원회'는 피해자와 함께 성폭력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7월 18일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8월 4일 김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염려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은 기각되었다.

② 유니텔 성희롱 사건

이 사건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 시점은 98년 8월 15일이다. 피해자는 유니텔 플라자에서 '군가산점 논쟁' 중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었고 논쟁은 일정수준을 넘어선 남 대 여의 감정적 공방과 대립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양승현(ID : 정보처리)이라는 이용자가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글을 플라자에 게시했고 이어 피해자에게 성희롱과 욕설이 담긴 메일을 보냈다. 처음, 피해자는 수신된 메일을 삭제했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메일을 통해 성희롱을 했고, 나중에는 메일을 증거자료로 삼겠다는 피해자의 대응에 제목에 욕설과 성희롱을 담은 비밀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에 피해자는 유니텔 측에 신고메일을 보내고 플라자에 가해자의 메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유니텔 측에서는 가해자의 잘못된 문제삼지 않은 채, 피해자가 게시한 가해자의 메일 내용 중에 욕설부분이 게시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문제삼아 피해자의 게시물을 삭제하였다. 이 사건은 플라자에서 파장을 일으켰고, 네티즌들은 피해자 편과 가해자 편으로 나뉘어 공방이 가열되었다.

문제는 가해자가 논란의 처음이었던 군 가산점 가중치부여에 대한 입장과 상관없이, 인신공격과 성희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이용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플라자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다.

733 정보처리 양승현 08/15 N [병신 지랄하긴 꺼져 미친년아 병신주제에...]
732 정보처리 양승현 08/15 N 개 씨발 댕시비? 다리벌러 내가 니 씨르네...
731 정보처리 양승현 08/15 N [답장]씨발 보지아 내이름 양승현아니닷 니...
730 정보처리 양승현 08/15 N [답장]병신아 고발해 이 시팔년아 내 정액...
729 정보처리 양승현 08/15 N 개 씨발길레야 니보지가 그렇게 니네엄마보...
[답장]호빵맨의 기록한 글(도닥도닥)

보낸이 : 정보처리 /양승현

수신인 : *****

날 짜 : 98/08/09 03:18:57

본문크기: 620B

됐어...니 말대로 니 남자가 하는 짓 다 해라!@@

집에서 자위행위 1주일에 2번씩하고 본드루 불고 노가다루 뛰고 이년 순 병신이잖아.

돌대가리 주제에...화 그냥...아가리 날리 버려...개년!

시발 재수 없어!!

③ 나우누리 북토피아 사례

98년 8월12일 저녁, 대화방 대기실에서 대화방 검색을 하고 있던 피해자는 김봉오(ID : 북토피아)라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를 받았다.

"섹스하고 싶으면 이리로" 뭐 필요해? 용돈?"

격분한 피해자는 즉시 "귀하의 메모는 지금부터 갈무리됩니다"라는 경고메모를 보냈고 뒤이어 가해자로부터 "귀하의 메모는 지금부터 갈무리됩니다"라는 자신이 보낸 메모와 똑같은 내용의 메모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나우누리를 사용한지 2달여 밖에 안되어 통신기술상의 미숙함으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실패하였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나우누리 '불량이용신고'(go tojigi)에 신고하였고, 센터 측에서는 결정적으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치는 할 수 없지만 가해자에게 확인전화와 경고를 하겠다고 메일로 답해왔다. 그러나 가해자는 8월13일 오전 6시를 끝으로 접속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사과도 없었다. 피해자는 다시, 나우누리 플라자에 온라인성폭력 고발글을 게시하였다.

이후 가해자의 아이디는 이용요금면제로 자동해지 되었다. 이는 통신사에서 여성이용자들이 온라인성폭력을 당했을 때 대부분 당황하거나 증거자료 확보 기술을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사례이다. 통신사 측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④ 천리안 '화냥년' 사건

98년 9월 19일, 한 여성네티즌이 천리안 대화실 내 여성전용대화방인 '숙녀방'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중 김성수(ID: KVCTORY)라는 알지 못하는 이용자로 부터 다음과 같은 노골적인 성희롱이 담긴 메모를 받게 되었다.

[메모: KVCTORY] 화냥질 하겠는지??

/MEMO KVCTORY 시로

[메모: KVCTORY] 이리와... 가슴을 빨고 싶어..

/MEMO KVCTORY 너겨 다 갈무리하고 있으나한 한번만 더 뽀뽀내면 죽인당

[메모: KVCTORY] 예라이 화냥년아! 니 예미년 다했어 화냥질이나? 길레년!

/MEMO KVCTORY 무하하

피해자는 곧 천리안 측에 이를 신고하였다. 그러나 천리안 측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1차 경고로 그친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아이디(화냥년)를 문제삼아 아이디 삭제처분을 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는 여성학동호회에 지원을 요청했고 여성학동호회에서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와 공대위는 천리안 측에는 가해자처벌과 공개사과문게시, 아이디 복구 등을 요구하는 메일을, 가해자에게는 사과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냈고 각 통신망 여성관련 동호회와 진보통신 동호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천리안 측은 공대위 측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다. 이에 공대위는 천리안 측에 다시 항의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천리안 측과 가해자는 공대위 측이 요구한 시일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에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사건을 공개하고 통신상에 여론을 일으키는 작업을 하였다. 개별적인 통신 이용자들은 가해자에게 항의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해자는 침묵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공대위는 천리안 온라인포럼에 토론실을 개설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온라인성폭력의 문제점을 알리고 네티즌들과 토론을 시작하였다. 토론실의 여론은 역시 다수의 남성이용자들이 많은 발언을 했는데, 대다수 이용자들은 피해자의 아이디가 온라인성폭력을 유도했다는 아이디책임론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으로 몇몇 토론자들에 의해 토론이 감정적인 분위기로 흐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온라인성폭력이 행해졌다.

이러는 과정 중에도 천리안 측과 가해자 측에서는 이렇다 할만한 반응이 없었다. 공대위 측에서는 토론실에 천리안 측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게시하고 네티즌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은 일간지상에도 기사화 되었고 진보통신동호회와 포럼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천리안 측에서 가해자 측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두절이라는 메일이 도착했다. 천리안 측에서는 공대위 측이 요구한 사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전환을 했고 공대위가 온라인성폭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을 끝으로 가해자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다.

⑤ 게시판 사례

플라자나 여성동호회, 여자대학 동호회 비회원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여성비하적인 게시물을 올린 경우이다. 이들은 여성의 성에 대한 욕설과 비어, 여성의 무능함이나 남존여비의 논조가 담긴 게시물들을 올렸다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남기지 않는 공통된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제한적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이 특정개인에게 온라인성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어떠한 근거도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게시판에 올린 여성 비하적인 글이 온라인성폭력이 되는 이유는 이들이 여성동호회와 여자대학동호회 등 여성이용자들이 많은 곳을 골라가며 올렸으며 올린 글 내용이 명백하게 여성에 대한 성차별,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동호회원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신의 글에 반박하는 여성이용자들을 지목하여 욕설이나 비어가 담긴 답글을 게시하기도 한다.

※ 부산대학교의 사이버 성폭력 사례

① 음란물을 메일로 받다!

부산대학교 총여학생회 대표 메일 주소로 동영상상이 수신되었다. 메일의 제목은 <신혼여행>이었고, 광고 메일인줄 알고 열어보았더니 신혼여행에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었다. 논란 총여학생회 간부는 메일을 삭제하였고, 이후에 휴지통 비우기를 하여 발신지는 추적하지 못하였다. 홈페이지 등에 대표 메일 주소를 보고 주로 여성단체나 여학생회에 이러한 메일을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② 총여학생회 홈페이지의 사례

2000년 도서관 열람실 성폭력 사건은 동일범에게 당했다는 신고와 사진 확인으로 상습범으로 확인되었고, 도서관 출입을 금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나타났다. 이에 총여학생회에서는 가해자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총여학생회 홈페이지 게시에는 가해자의 이름을 사칭하며 음담패설, 욕설, 언어 성희롱의 글들이 올라왔다.

③ 부산대 여성주의 웹진 월장 사례

II. 부산대학교 학내 성폭력 사례

94년 순환버스 성폭력

94년 아침 등교길의 비좁은 순환버스 안에서 예술대 여학생의 치마 속으로 남자의 손이 들어왔었던 사건. 고함을 질렀으나 범인을 잡을 수 없었고, 분노한 여학우는 총여로 신고, 총여에서 나간 자보를 두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그 논쟁의 내용은 아주 수준 낮은 것이었다. 짧은 치마 입었던 것 아니냐는 식의 일부 불지각한 남학생들의 발언과 그에 대응하는 여학생들의 발언 등이 었다.

순환버스 성폭력을 2001년에도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소비조합 아저씨의 성폭행

94년 소비조합 **가게 아저씨가 일하는 아이 하나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총여의 요구로 파면되었다.

97년 시간강사의 언어적 성폭력

97년 시간강사가 제시함을 치러온 여학생을 차에 태우고 언어적 성폭력을 함. '성관계를 나눈 사이가 가장 가까운 사이다' '둘이서 조용히 시험칠만한 장소는 여관이 좋은데...' '리포트 소스를 줄테니 애인이 돼달라'는 등의 모욕적 말을 들은 여학생은 총여학생회에 신고를 하게되었고 여러차례의 만남 끝에 강사는 사과문을 내고 파면되었다.

98년 자취방 성폭력 사건

98년말 한 여학우가 자취방에서 당한 간접적 성폭력 사건이다. 같은 집에 사는 남학생이 술에 취해 도구를 이용해 여학생의 자취방을 파고 들어오려 했었고, 두려움에 떨던 여학생이 남자친구 등을 불러 주민등록증을 압수하고 총여에 신고하였다. 이때 여학생은 '자신외에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는 여학생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었다. 가해자는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총여와 만났을 때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의 요구대로 따를 의지를 밝혔다. 결국 중도 접근금지, 금정식당 접근금지, 사과문으로 정리되었다.

자연대 김교수 성폭력 사건

98년 말에 일어났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학내에서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으며, 김모교수가 외부에서 세미나 등에서 타학교 조교를 알게 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차례 간음한 사건이었다. 이에 못 견디고 피해자의 고소로 김모교수는 구속되었는데, 이때 김모교수의 동료들이 피해자에게 엄청난 협박전화를 했었다. 결국 김모교수가 사임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합의해주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김모교수도 풀려나 사임했다.

99년 학생들간의 성폭력 (일명 '노군성폭력사건')

99년 남학생이 같은 동아리 동기 여학생을 6개월 동안 성폭력한 일이 있었다. 언어적 성폭력, 성추행, 음란 사진 등에서부터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에 여학생은 인문대 여학생국으로 신고하고 학내 성폭력관련 규정에 신고하였으나 규정이 미흡하여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였고 남학생은 군대로 도망쳤다.

화장실 성폭력

남학생 혹은 외부인(男)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훑쳐보거나 화장실 밀 통으로 손을 넣어 여학우의 엉덩이를 만지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예전부터 인문대 화장실의 경우 남자가 막무가내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갖가지 성폭력이 많이 일어난 곳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99년 10월·2000년 1월·5월 인문관 여자화장실, 3월 청단관 여자화장실 등에서 일어났고, 이는 알려지지 않은 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에는 인문관 실내 여자화장실에 계속 들어오는 남자가 발견되었다는 제보가 있었으며, 이 경우 남자는 매우 뻔뻔하고 상습적이었다. 아직 범인은 잡지 못했다.

2000년 교환학생이 당했던 성폭력

2000년 초 우리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교환학생이 외국인 기숙사로 올라가는 길(학생회관 근처)에서 뒤에서 갑자기 덮친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던 사건이다. 이 학생은 총장에게까지 편지를 쓰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한국인 친구로부터 총여에 대해 듣고서 총여에 신고를 해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민족효원 지킴이(자치규찰대), 비상전화 설치, 가로등 설치, 이후 성폭력 공청회 등의 방안을 총여간부와 함께 논의했다. 이때 이 학생으로부터 학생회관 근처에서 다른 외국인 교환학생도 이같은 일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으며 어두운 학내거리가 성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었다. 또한 이 외국인 교환학생의 '한국여성들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대처해야하며 여학생들의 힘, 총여의 힘으로 길러야 한다'라는 얘기 속에서 순결이대울로기가 없는 외국인이라 한국여성들이 성폭력을 경험한 후 흔히 가지는 피해자의 수치심(내 몸이 더럽혀졌다는 등의)이 아닌 범죄를 당했다는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계기였다.

성기노출

95년에서 96년 생활환경대, 예술대 등지에서 외부인(男)이 여학생들 앞에서 성기노출을 하고 도망가는 사건

(일명 '나뭇잎엔'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최근 5, 6월달에도 한 남자가 생활대 강의시간 창문밖에서 성기노출을 하고, 인문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기노출을 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결국 지난 8월초 인문관 여자화장실에서 성기노출증세를 잡았던 남학우에 의해 다시 잡혀왔고 성기노출증 이씨는 민족효원에 이름과 사진이 공개되었다.

도서관 열람실 성폭력

자는 여학우를 골라 3번정도 옮겨다니다가 결국 덜미가 잡혀 총여로 신고가 들어왔다. 결국 사과문을 받고 중도 접근금지, 부산성폭력상담소의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러 갔다. 성폭력의 안전지대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던 사건이다.

모포지, 술자리 등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친구, 혹은 선후배 사이에서 자는 중에 더듬는다거나 강제로 뽀뽀한다거나 음담패설, 음란벌칙(ex. 여성을 놀려놓고 그 위에서 꾸밈음을 시켜 이상한 포즈를 연출시키는 등의, 주로 동문에서 아직도 이런 벌칙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을 하여 여학우들이 불쾌해하고 소외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2001년 선후배 간의 성폭력

낮에 모임에 오라는 선배(과학영 94)의 말을 듣고, 그전에도 선배의 고민을 풀어준 경험이 있던 여학우는 술자리에 동석했고,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러다가 시간이 늦어 집에 가던 여학우에게 성추행을 하고, 자신의 자취방에를 가자고 했다.

그 이후에 그 선배를 다시 보는 것이 곤욕이었던 여학우는 총여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의 설명 사과와 학내의 제한적 출입금지를 시켰다. 가해자는 현재(2001. 5) 가해자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III. 학내의 성폭력 규제 학칙이 필요한 이유

지난 수년동안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성폭력은 뿌리깊은 가부장제의 고리들이 학내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며, 오히려 학교라는 특유의 권력 관계 속에서 더욱더 심각하게 은폐되어 왔다.

이에 각 학교 총여학생회에서는 사건의 직접적인 해결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피해항락문화 추방 운동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몇 년 사이에 성폭력 문제가 정점화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 대응방안이 없는 성폭력 근절의 노력은 자체의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학내의 성폭력 사건을 대응했던 그 동안의 과정들은 거의 일회적이고 단기적이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있어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인하여 강제성을 띠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대학 내 성폭력이 근절되고 그것이 대학을 넘어 사회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이고 지속적인 형태의 성폭력 근절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전국의 각 대학에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 규제 학칙 제·개정 투쟁이다.

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에 실질적 강제력을 발휘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학내 성폭력 규제 학칙은 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교 당국의 책임성과 해결의지를 명백히 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사건 해결의 과정, 성폭력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명시함으로써 해서 성폭력 문제 해결에 실질적 강제력을 발휘하는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② 학칙은 대학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과 대학내의 생활 권리를 보호한다.

학내 성폭력 규제 학칙은 대학내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여,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와 합의 하에 학내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 규제 학칙은 제정해서 적용까지 학내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한다.

또한 대학은 교육 받고 교육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마련해야 하며, 학내구성원의 생활권과 성적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③ 대학 사회의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하며 사회로 이전시킨다.

성폭력 문제를 학칙에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관점을 개인에서 사회로 이전 시킴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은 학우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성폭력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흐름을 가져 올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되는 것이다.

또한 대학사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러한 새로운 성문화를 사회적으로 유포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IV. 현 <부산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진단한다!

① <부산대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기까지

- 꾸준히 진행되어 왔던 개별적 성폭력 사건 해결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대략적으로 서술

부산대의 학칙 제정의 목소리는 96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당시 총여학생회의 요구사항은 '성상담소 공간 마련, 성상담소 전문 인력 마련, 학내 성폭력 규제 학칙제정'이었다. 그러나 학교당국은 그 요구조건 중 성상담소 공간만 마련해주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성상담소는 무용지물이었다.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을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97년 9대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여내었으며, 학칙안을 학교당국에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실태조사의 결과에 많은 회원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9대 총여는 학교당국에 대해 학내 성폭력상담실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98년 초 학생생활연구소 내 성폭력상담실이 개설되는 성과를 내었다.

98년 10대 총여학생회는 초기에 학칙 제정을 위한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었지만 그 이후 꾸준한 연구사업과 학우들과 함께 진행하는 대중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학교당국에서 갑자기 마음을 바꿔 9월달에 총여학생회의 학칙안을 멋대로 수정하여 학교측의 안으로 통과시켰다.

●부산대학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성폭력의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성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모독행위를 뜻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시간강사포함)와 직원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한다.

제2장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

제1절 성폭력 상담실

제4조 (설치)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연구소에 성폭력 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3. 성실태 조사 및 연구
4. 성윤리위원회에 성폭력 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제6조 (설장) ① 상담실에 설장을 두되, 상담실장은 학생생활연구소의 소장으로 보한다.

② 설장은 상담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절 성윤리위원회

제7조 (설치) 성폭력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하에 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관계전문가 및 학생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총여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생생활연구소의 성폭력 상담 조교로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씩 연2회를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2.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성폭력 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성폭력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장 성폭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0조 (상담) ① 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반윤리적·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제11조 (조사·보고) ① 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에 심사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정 및 처리) ① 위원회는 제11조 제2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배상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3조 (수당등 경비) 위원회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수당등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14조 (비밀의 준수) 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과정에서 알게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담실장과 위원장이 소관업무별로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의 학생생활연구소의 "성폭력상담실"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학칙의 문제점

■ 모호한 성폭력의 개념

명확한 성폭력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포함되는 내용들도 규정하여야 하며 사이버 성폭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 학내 성폭력 상담실의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 등의 문제

현재 학내 성폭력 상담실에는 학교생활연구소 연구원 1인이 성폭력 상담조교를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성폭력 상담실에 지원되는 예산은 없다!

■ 성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권 문제

성윤리 위원들을 구성하는 기준이 없으면서, 사건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위원들의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 또한 교수, 교직원, 학생의 3자가 공평하게 위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규정 자체의 문제

-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다.

- 적용범위가 확실하지 않고 협소하다.

■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대안이 없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분명 규정의 제목에는 '예방'에 대한 것이 들어갔지만 학칙을 꼼꼼히 살펴보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예를 들면, 연 2회 의무 성교육 정도라도 있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징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이다.

■ 피해자의 치유보다는 사건에 더 관심이 많은 학칙

학칙의 내용 전반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성폭력의 고통에서 치유되기 위한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 전문기관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받게 한다라는 조항 하나도 없는 학칙... 누군 위해서 성폭력을 처리하는가?!

V. 학내 사이버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① 성폭력 규제 학칙에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조항을 첨가한다.

정의에 명확하게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조항을 첨가하여 이에 대한 징계와 예방책을 학칙으로 규정하여 강제력을 띠게 한다.

② 학내의 자유게시판, 과·동아리 게시판에 사이버 공간 상의 윤리 의식을 높이는 학교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가장 개선되어야 할 것은 온라인공간상의 윤리의식이다. 피해자나 가해자 또는 목격자들은 우선적으로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는데 대한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하며,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 및 가해자가 향후 겪게 될 제재조치 등에 대한 분명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의 게시판을 이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정이 있는 약관이 필요하며, 신고나 법적 제재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

사이버 성폭력의 법적 처리과정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I. 사이버성폭력

1.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특징

가. 가해자의 특징

- 사이버스트커들은 보편적으로 여자와 아동을 표적으로 삼는다.
- 스트커들은 온라인의 익명성으로 힘을 얻는 듯이 느낀다.
- 스트커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흥미를 잃어 버린다.

나. 피해자의 특징

- 피해자는 보편적으로 미성숙한 이용자이고 네티켓의 규칙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다. 인터넷 통신의 특징

1) 익명성 및 가상성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실체는 메시지로만 상대방에게 존재한다. 사이버 공간이 익명의 공간이므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숨겨진 익명성은 곧 가상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제한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익명성을 이용한다. 즉 외모, 연령, 성별, 국적 등은 물론이고 과거 경력, 직업, 혼인관계 등 자신에 대한 모든 사실을 감출 수 있는 익명의 존재가 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으로 개인은 위축된 자아를 확장할 수 있으나, 반면에 익명성은 기계를 앞에 두고 하는 존재 확인이 없는 비인간적 커뮤니케이션 교류로서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과 상스러운 표현이 가능한 것(김유정, 1998, 93-94)이다. 또한 자기를 가장하는 등 자기 기만을 지속하는 경우에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스스로 위장하여, 타인에게 거짓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언어적 정서적 공격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2) 탈공간성, 탈시간성

사이버 공간에서는 물리적 공간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지역의 원근 거리감도 의미가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

는 대륙, 국가와 지역이 아무런 장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거리를 뛰어넘는 것은 걷다가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이 개인에게는 존재의 삼차원적 제한성을 극복하는 것으로서 능력감을 증폭시키고 존재의 확대감을 느끼게 만든다. 즉 개인은 자신을 제한된 실제 시공간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자기존재를 확장시킬 수 있다.

대륙과 해양 등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는 개인들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동질적 존재로서 인지하고 별다른 이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외모, 국적, 국가의 이해관계, 이념의 차이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유사한 관심사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네티즌간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고속성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지각하고 사고하고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속도감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처리 속도와 비견할 수 없다. 광케이블 등 통신장비의 개선으로 그 속도는 더욱 증속하여 신체는 그 속도감에 익숙해지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초고속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출입과 퇴진을 매우 신속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한 예로 말이 끝나자마자 그 현장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대면적 의사소통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이버공간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상대방 메시지로만 확인되기 때문에 메시지를 읽고 의미를 파악할 때에는 이미 상대의 실체는 사이버 공간 내에서 탈출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동아리와 같은 집단 구성원들과의 동시 만남이 가능하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고 개인은 그들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접속을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은 대인관계를 무제한으로 확대할 수 있다.

2. 사이버성폭력 유형

- 통신이용 성적명예훼손

- 음란홈페이지, 음란물유포

- 통신이용 음란물, 글 등 유포

- 몰래카메라등

II. 신고방법

- 고소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또는 범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

- 인터넷 신고

www.police.go.kr(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신고센터)에 피해내용을 기록하여 신고

- 방문상담 신고

경찰서,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사이버범죄수사대 등에 직접 방문 상담 신고

피해자의 증거자료 수집, 제출 : 현장에서 논의

III. 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서,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드시 고소가 필요함)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벌칙)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